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0호 HYUNBULNEWS.COM 2025년 5월 7일(음력 4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치유와 희망의 봄을 발원하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참화로 많은 국민이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의성 고운사 대웅전에서 '치유와 희망의 봄'을 발원하는 봉축법요식이 봉행됐다. 가까스로 화마를 피한 대웅전 앞에는 사찰 복원과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색색의 연등으로 걸렸다. 사진=정현선 작가

# 불기 2569년 봉축법요식 "본래 부처로 살자"

**5월 5일, 조계사에 사부대중 1만명 운집**
**진우 스님 "집착 비우면 공덕 실현" 강조**
**지도자 · 공직자에 "공동체 위한 정의" 당부**
**사회적 약자 ·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참석**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5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등 불교계 주요인사와 정관계 인사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날과 겹친 올해 봉축법요식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스님이 4명의 어린이에게 마정수기를 내리며 미래 부처가 될 것을 수기하며 시작됐다. 이어 전통적인 '육법공양'의 의미를 되살려 등, 향, 꽃, 차와 과일,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모두 갖추어 부처님 전에 올렸다. 무엇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사회적 약자들도 육법공양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며 종정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화엄경〉의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를 강조하며 "존엄성을 인정하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을 극락처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안목으로 세상을 살면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행하는 일마다 무진법문이 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축사에 앞서 대중들은 선명상을 실참했다. 이후 진우 스님은 봉축사에서 '일체유심조'를 강조하며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짓는 바임을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으로 이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우 스님은 "고통은 내 마음 속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지어낸 결과"라며 "이러한 번뇌가 사라질 때 비로소 세상은 고통없는 극락정토로 변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5일 오전 10시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총본산 서울 조계사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탄생을 축하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이어 정치권에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스님은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면서 "진정한 정의는 공동체를 위한 무욕의 정의이며 그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화가 꽃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자타불이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서로를 보살피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안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각 분야에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보여준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정병국 참좋은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승기 배우, 임시현 양궁선수, 김윤봉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상패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날 법요식은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발원문 대표낭독으로 회향했다. 사부대중은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함께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수행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 "무공저 소리에 보리 들판 춤추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을사년 하안거 결제 법어**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5월 12일 을사년 하안거 결제를 앞두고 치열하게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성파 대종사는 "무명업장을 끊고 확철대오하기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는 헝클어진 실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한칼에 끊어야 한다"고 지도하며 "화두참구가 성성(惺惺)하면 무아의 이치가 드러나고 그 마음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아져서 부처님과 조사께서 체득하신 신통묘용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송 "시를 배우는 일 처음 선을 배우는 것 같아 / 깨치지 못한 이 널리 참방해야 하네 / 어느 날 깨우쳐 정법안을 얻으면 /손 가는 대로 문장은 이루어진다네!"를 읊으며 자유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다. 임은호 기자

다음 주는 봉축 관계로 휴간합니다.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Myogaksa Templestay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mygaktemple@naver.com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낙산묘각사
☎ 02.763.3109

# “화마 아픔 가시길” 불자들 후원 손길 이어진다

**비구니회, 국가유산청 방문 격려**
**동국대 구성원 십시일반 1억여원**
**여성불자회 2370만원…회복 염원**
**원로의원들, 고운사 직접 방문키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사찰과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불자들의 후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비구니회, 동국대, 전국여성불자회 전달식 모습.

임은호 · 김내영 기자 imeunho@hyunbul.com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후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 보호와 지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4월 29일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보호 및 불교문화유산 소산 격려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영남 지역의 대규모 산불 발생 당시 주요 사찰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방염포를 설치하고 성보를 이운하는 등 화재 방재에 노력한 국가유산청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함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전국비구니회의 성금 기탁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했지만 천년고찰 고운사와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이 전소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 민간기업 하이브가 고운사 피해 복구 등에 10억원을 지정 기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소실된 문화유산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청장은 “산불 당시 지역 돌봄단체 25곳이 나서 방염포 설치 등 긴급 대응에 힘을 보탰다”며 “산불은 진화됐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독성 화합물과 냄새 등이 남아 있어, 성금은 이들 단체를 돕는 데에도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체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에 회장 광용 스님은 “개인의 실수로 시작된 산불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 것이 가슴 아프다. 종교인으로서 자책의 마음도 든다”며 “잠 못 자고씻지도 못한 채 헬기로 불을 끈 산림청과 소방관들,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쓴 국가유산청 모두 정말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사회에 무심한 것 같지만, 매일 새벽 국태민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어렵게 모은 성금인 만큼 그 의미에 맞게 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5월 16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 4곳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동국대 서울 및 Wise 캠퍼스와 의료원 등 동국 구성원들은 4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1억 132만 6000원을 쾌척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지역민을 돕기 위해 학교와 의료원이 같은 기간 모금을 시작했고 현재도 모연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도 2370만원을 전달하며 피해 사찰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발원했다.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은 “4월 19일 고운사를 방문하는 순례를 다녀왔다”며 “피해 현장을 다녀와보니 참담한 심정이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불자로서 당연히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성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큰 피해를 입은 사찰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농협중앙회는 4월 29일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발원하며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희사했다. 강호동 회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농협을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셨기에 이러한 기부가 가능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TN불교TV는 4월 9일 5억원에 이어, 4월 30일 3억 4130만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한 사부대중의 온정이 모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 스님)도 힘을 보탰다. 법륜 스님은 5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산불로 고운사를 비롯한 문화유산이 크게 손실됐다는 소식을 듣고 복구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정토회에서도 피해 주민 3000가구에 간장과 고추장, 기름 등 식재료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은 사찰과 지역민에 2차에 걸쳐 지원금을 전달했고, 앞으로 식재료와 가전제품 등 15억 상당의 긴급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4월 22일 의성 고운사를 직접 방문, 화재에도 제 모습을 잃지 않은 대웅전을 참배하고 주지 등운 스님에게 긴급모금 기금 3400만원을 전달했다.

등운 스님은 감사를 표하며 “종단의 큰스님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 “복원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진우 스님, 제주항공·산불 구호 지원 활동자 표창

**4월 29일, 복지관 8곳 표창**
**양주회암사 · 서정대 · 화목회 등**
**미얀마 · 산불 구호 후원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긴급구호단 활동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긴급구호 상황에서 적극 활동해 준 기관과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제주항공 사고, 영남 지역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친 대한불교조계종긴급구호단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긴급구호단 활동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긴급구호 상황에서 적극 활동해 준 기관과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표창 기관은 총 8곳이다.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건태),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재진), 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주성), 하당노인복지관(관장 도정 스님)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탈주로 이탈 사고 현장에서 부스를 설치 운영해 유가족들을 지원했다.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영남 지역 산불 이재민 지원 및 구호활동을 펼친 복지관에도 표창이 이어졌다. 의성노인복지관(관장 휴담 스님), 안계노인복지관(관장 김대규)은 의성 지역 이재민을 지원하는 부스를 운영했으며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천진숙),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배)은 영남 지역 산불 이재민 및 사찰 산불 예방 지원 활동을 펼친 점에서 이날 표창을 받았다.

진우 스님은 “긴급구호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모했다”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며 유가족과 이재민을 위로한 정성은 그야말로 자비의 큰 마음”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복지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 모아줘 감사하다”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복지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모델화 함으로써 향후 재난 대응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산불 이재민과 미얀마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 후원금 전달식도 있었다.

양주 회암사(주지 인공 스님)와 서정대 불교동아리, 불조사리기도회는 미얀마 지진 긴급구호 활동 후원금 1473만 4360원을 전달했다. 서정대 불교동아리는 미얀마 출신 학생들이 회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미를 더했다.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단 화목회(회장 이문희)는 진우 스님에게 산불 이재민 긴급구호 후원금 1024만 7060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 산불시 전통사찰 선제 대응 가능해지나

**정희용 의원, 문화유산 · 전통사찰법 개정안 발의**

**현상변경 허가, 재난 한정 예외**
**전통사찰 내 수목제거 등 명문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화유산법 개정안)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사찰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법 개정안’과 ‘전통사찰법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으로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선조치’를 하고,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통사찰법 개정안’을 통해 △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 △방염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 수해 예방 조치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긴급 보호 및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2025 한마음과학 국제심포지엄
현대 사회에서의 마음공부와 치유
일시 : 2025.5.31.(토) 장소 :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개회식 13:30 ~ 13:50 사회: 장미란 (삼성서울병원 연구원)
발 표 14:00 ~ 17:20 좌장: 박소진 (신한대학교 교수)
수용전념치료(ACT)와 불교 – 융합과 분화
발표: 케네스 펑 (토론토 대학교 교수)
토론: 최명희 (경북대학교 강사)
마음 공부와 자기 치유 – 붓다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발표: 최훈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토론: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 원장)
고령화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처방안
발표: 김주현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김준형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폐회식 17:20 ~ 17:30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2025 International Hanmaum Science Symposium
Spiritual Practice and Healing in Modern Society
May 31st, 2025 Hanmaum Seonwon, Anyang, Republic of Korea
Opening Session 13:30 ~ 13:50 Moderator: Miran Jang (Researcher, Samsung Medical Center)
Presentations 14:00 ~ 17:20 Moderator: So Jin Park (Professor, Shinhan University)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d Buddhism – Convergence & Divergence
Speaker: Kenneth Fung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Discussant: Myeong-Hui Choe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ind Cultivation and Self-Healing – Focusing on the Enlightenment of the Buddha
Speaker: Hoon-Dong Choe (Adjunct Professor,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
Discussant: Junyeop Lee (Head, Yaksanae Hospital)
Issue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Speaker: Joo Hyun Kim (Professor Emerit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June Hyoung Kim (Lecturer,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Osan University)
Closing Session 17:20 ~ 17:30
YouTube Watch Live on Hanmaum Seonwon YouTube Channel
Download the Symposium Proceedings on HanSI Website (https://hansi.org)
Host: Hanmaum Seonwon Foundation Organizer: Hanmaum Science Institute
Hanmaum Science Institute Hanmaum Seonwon Foundation

# “부처님 · 스님 · 도반 또 만나요!”

**서울 조계사 청년 단기출가 회향**
**담화 스님, 청년들에 수행증 수여**
**“또래와 함께 수행한 소중한 추억”**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사 청년 · 대학생 단기출가에 참가한 청년들이 4월 30일 열린 회향식에서 대승원력 10계를 합송하며 절을 하고 있다.

“저는 공양간의 빈 그릇입니다. 저는 풍경을 스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수행자입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참가자 소감 발표 中)

무한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9명의 청년이 출가 체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방향을 찾았다. 스님의 일상을 몸소 체험한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물러섬 없이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4월 30일 경내 관음전에서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수계 회향식’을 열고 5박 6일간의 수행 일정을 마무리했다. 단기출가에 참가한 9명(남자 5명·여자 4명)의 청년은 4월 25일 입재를 시작으로 새벽 예불, 습의, 경전 강의, 운력, 삼보일배 등을 경험했다.

주지 담화 스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행자의 삶을 진심으로 경험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이 소중한 시간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도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주지 탄보 스님은 9명의 단기출가 참가 청년을 향해 “여러분들은 부처님 눈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눈을 얻었다”며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밝혀서 나와 인연 맺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세에 다시 돌아가면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무가치한 순간으로 점철되기 쉬운데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연하게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라”며 “조계사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사회 모범이 되고, 자비 지혜 행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법문을 들은 9명의 청년은 대승원력 10계를 합송하며 ‘바른 관점으로 치우침 없이 세상을 바라볼 것’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실천으로 불교를 전할 것’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부처임을 명심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어 교수사 종무행정지원단장 성해 스님, 신도지원단장 원지 스님이 참회진언을 외고 있는 청년들의 팔에 향으로 연비했다.

담화 스님은 연비의식을 마친 청년들에게 수행증과 삼귀의계·오계·대승원력 10계 수계증을 수여했다. 흔들림 없는 불자의 길을 응원하며 장학금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물인 108염주와 저서 등도 전달했다.

청년들은 단기출가가 또래와 함께 수행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배움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신정윤(법수) 씨는 “반복되는 일상과 잘못된 습관 속에서 삶이 벅차 멈춰 서게 됐다”며 “출가 기간 동안의 수행은 매순간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었고,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다시 고해의 바다로 돌아간다”며 “살다 보면 거센 파랑을 마주하겠지만, 이곳에서 스님들과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했던 것을 기억하며 물러서지 않고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맺어진 인연을 떠나보내기 아쉽지만, 인연 따라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며 대웅전 부처님과 스님들, 도반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정지운(법일) 씨도 “내면이 허하고, 자극에도 쉽게 흔들렸는데 출가 경험을 통해 그 원인이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상대에게 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따뜻하게 반겨준 스님들과 도반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4월 28일 봉행된 대행 선사 열반 13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대행 선사의 영전에 헌다하고 있다.

#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열반 13주기 추모

**4월 28일 본원서…1천 대중 참여**
**세계 포교 여정 그려낸 다큐 상영**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3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4월 28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3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본원 및 국내외 지원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행 선사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에서는 대행 선사 열반 추모특집 다큐멘터리 ‘세계 포교의 길 3부’ 영상이 상영됐다. 다큐에서는 대행 선사와 후학들이 창건한 해외 지원들의 역사와 현황을 조명했다. 특히, 해외지원을 다니며 설한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이 나오자 스님과 신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1부 다큐는 지난해 12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상영됐고, 2부 다큐는 최근 봉행된 보름법회에서 대중에게 소개됐다.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께서는 수십 년을 법문해주시면서 세계인들을 공부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서 “해외지원 스님들과 현지 신도들이 하고 있는 번역이 원만 성취돼 선사의 말씀 한 자라도 더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법산 대종사는 추모시 ‘만공리 피리소리’를 통해 “참 성품 깊고 깊어 찾아 볼 수 없으나 묘용(妙用)은 자재(自在)로히 뭇 생명 보살피네, 한마음 청정하면 모든 부처 환희하고 대비대행(大悲大行) 대원(大願) 펼쳐 정토사회 이루세”라고 설했다. 신중일 기자

# 경찰청, 참수리등 점등으로 부처님오신날 경축

**4월 29일, “국민의 희망 경찰” 발원**
**산불피해 사찰 복구 위한 성금 전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모양 등에 불이 밝혀졌다.

대한불교경승단과 경찰청 불교회는 4월 29일 경찰청 1층 로비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경찰청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참석 대중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찰을 발원하며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참수리등 점등 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축사가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나라는 한 사람의 마음 등불이 켜지면 그 빛은 곧 동료에게로, 가족에게로, 그리고 이웃 사회로 퍼져나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연등이 되고 동체대비의 마음가짐으로 불국토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경찰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마음 깊이 기원했다.

이날 점등식에서 경찰청 불교회(회장 이선래)는 진우 스님에게 산불피해 사찰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빠른 복구를 염원했다.

참석대중은 강현욱·이민영 경찰청 경감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구조하며 범법의 두려움 안에서 누구나 존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부름에 언제나 달려가는 호법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면서 “분노와 중압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현실의 벽 앞에 지칠 때마다 부처님 자비의 빛을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했다.

참수리등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2일까지 경찰청 1층 로비를 밝힐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 가사와 연등에 ‘염원’을 담다

**서울공예박물관, 조계종과 특별전**
**보물 ‘자수 가사’ 47년만 첫 공개**

가사(袈裟)와 연등의 가치를 조명하고 그 속에 담긴 염원을 조망하는 특별전이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다. 가사 전시에서는 47년 만에 공개되는 보물 ‘자수 가사’와 서산·사명·벽암대사의 가사 등이 선보이고, 연등회 전시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등(燈)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과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염원을 담아’라는 대주제 아래 불교 자수공예 특별전 ‘실로 새겨 부처에 이르다’와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5주년 기념전 ‘빛을 띄워 마음을 밝히다’로 나눠 5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된다.

5월 2일 서울공예박물관 안내동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시를 계기로 가사전법이 지닌 무형문화로서의 가치와 불교문화유산 정통성이 더욱 널리 조명되고 온전히 계승되길 바란다”면서 “연등회가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가사 또한 그 정신적 문화적 의미가 널리 알려지고 존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서울공예박물관 특별전 ‘염원을 담아’에서 47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는 보물 ‘자수 가사’.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 동국대 건학위 4년, 전법·장학 기틀 세웠다

**건학위 최고, 상임위 회의서**
**4주년 성과, 올해 계획 발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서울 · 경주 5758명 활동 중**
**'지미불' 장학금 324% 증가**

**자승 스님 원력 〈불교사전〉**
**결실 맺어… 봉정식 봉행돼**
**첨단 분야 정원 64명 증원도**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4월 29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4월 29일 교내 정각원에서 열린 〈불교사전〉 봉정식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이 자승 스님 영전에 〈불교사전〉을 봉정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가 4월 29일로 출범 4주년을 맞았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천명했던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라는 기치 아래 출범했던 건학위원회는 명실상부한 학교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학생 전법과 장학제도에서 혁신적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4월 29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의 사업 현황 및 성과와 2025년 기관별 중점 추진 계획들이 공유됐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건학위원회의 추진 사업으로 동국대는 대학생 전법과 장학제도, 학생 취업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장학제도와 대학생 전법은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

2021년 11월 18일 포항 원법사의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5월 중 100회를 앞두고 있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간 2767명이 장학제도의 수혜를 받았다. 장학기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4년에는 17억 5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324%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불교동아리를 통한 캠퍼스 전법도 확실한 성과를 보여준 사업이다. 2024년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템플애플'의 창립을 시작으로 올해 4월 10일 외국인 유학생 불교동아리 '글로불동'까지 서울과 경주에 총 25개의 동아리가 창립됐다. 현재 서울캠퍼스에 3324명, WISE캠퍼스에 2294명, 듀이카(DUICA)에 140명 등 5758명의 학생이 불교동아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2년 시작된 교내 취업박람회 'JOB&FESTIVAL'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대학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로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실전 채용 프로세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2023년 69.7%라는 역대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업 성과들로 동국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 TOP10'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학부 학생 1인당 장학금(9위), 세입 대비 기부금(8위), 고교생 선호 대학(5위), 대학브랜드 파워지수(5위) 등 교육 여건과 평판도가 일신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의 성과는 신입생 증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국대는 2026년도 첨단분야 신입생 정원 배정에서 64명이 증원됐다. 이는 서울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증원으로 전국 2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의료인공지능공학과 등 신설로 인한 신입생까지 더하면 총 89명 증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자승 대종사의 원력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건학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제2건학'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묵묵히 그리고 단단히 걸어왔다"며 "이제 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교정체성을 강화하고 생활 속 신행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성화가 큰 결실을 맺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이제 우리 동국은 더 넓은 세상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대학, 중생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대학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불교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생 전법이 새로운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학위원회 4주년을 맞아 동국역경원이 1961년 초판 출간한 〈불교사전〉이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편찬·발간됐다. 이는 자승 스님의 '〈불교사전〉 현대화' 원력을 이은 것으로, 같은 날 정각원에서 봉정식이 봉행됐다.

이번 출간된 〈불교사전〉은 모두 1만9019개의 표제어로 구성됐다. 기존 초판본 〈불교사전〉에 있던 표제어와 관련 설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불자와 일반인도 쉽게 불교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문법에 맞게 문장을 손봤고, 60년간의 연구성과도 반영했다.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불교사전〉을 다시 출간하며 당시보다 훨씬 신선해지고 다채로워진 한국어를 적용하는 데 주력했다"며 "대작이 지닌 의의를 오늘날 되살리는 의미와 함께 그간 축적된 불교학 연구의 성과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제 7 회

천 태
사 진
공모전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주관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 운영위원회
후원 금강신문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불교천태종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사진예술로
승화하여 21세기 기록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 9월 17일~24일
전시 12월 3일~8일, 한국미술관
(서울시 인사동길12 대일빌딩 한국미술관2층)
입상자발표 10월 중 개별 통보

공모 개요

| | |
|---|---|
| 주 제 |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지역 자연 풍경,<br>사찰 및 불교 정신을 담은작품, 천태종 관련 사진 우대. |
| 자 격 | 제한 없음 |
| 규 격 | 장별 3,000픽셀, 해상도 300dpi, 용량 10MB 이상 JPEG파일.<br>출품작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것으로 한함.<br>작품의 파일명은 반드시 <작가명-작품명.jpg>로 할 것.<br>규격 파일형식 엄수, 규격 파일형식 미달은 심사 제외. |
| 출 품 수 | 1인 4점 이내. 타 공모전 출품 및 타인명 출품 심사 제외.<br>(추후 인지 시에 수상 취소) |
| 출품방법 |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br>E메일로 접수. |
| 출 품 료 | 없음. |
| 접수기간 | 2025년 9월 17일 ~ 24일 |
| 접 수 처 | Email : cheontaecmb2@kakao.com<br>Tel: 02-723-1559 |

시상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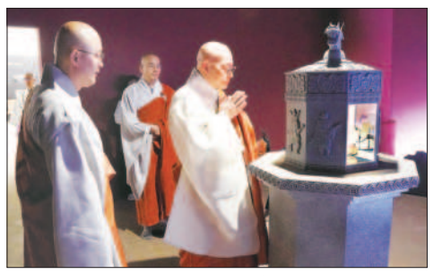
| 시 상 | 수 상 | 시 상 내 역 |
|---|---|---|
| 금 상 | 1명 |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
| 은 상 | 1명 |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
| 동 상 | 3명 |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 |
| 가 작 | 10명 | 상장 및 상금 각 30만 원 |
| 입 선 | 00명 | 상장 및 상품 |

*입상자에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입회 점수가 부여됩니다.

- DSLR, 드론(촬영허가서 첨부)으로 촬영한 작품만 심사(허가관련 위법 사항은 작가 책임).
-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사용권은 천태종에 있음.
- 작품의 초상권과 관련한 사항은 작가의 책임.
- 출품 후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 및 수신이 불가할 경우 주최 측에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 A.I 작품은 심사 제외. 창작적 의도로 보정을 한 경우 원본도 첨부(심사 참조용).
- 수상작과 동일작을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수상할 경우 수상 취소. 상금반납은 물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가 유보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의함.


## 진우 스님 "육바라밀 실천으로 업장 소멸"

**4월 28일, 도선사 초하루 법회서**
**청담 대종사 전시서 사리 친견도**
**태원 스님, 산불 복구에 50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반세기 만에 나투신 청담 대종사 展'을 관람하고 청담 대종사의 법신 사리를 친견했다.

음력 4월 1일 초하루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를 찾아 법문하고 육바라밀과 가족 전법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8일 도선사 초하루 법회 법사로 나섰다. 법좌에 오른 진우 스님은 불자로서 행해야 할 여섯 가지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의 당위성과 실천을 설하며 부단한 정진으로 업장소멸을 할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여섯 가지 보살이 해야 할 행동인 육바라밀의 실천은 결국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진짜 복은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있음을 알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별을 넘어서기 위한 육바라밀 실천행을 강조하며 "자비행으로 복을 쌓으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다. 그러면 가정도 이웃도 평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선명상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화가 날 땐 5초만 멈출 것"을 제안한 스님은 "과거 지나간 것도, 현재 지나는 것도,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잡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쉘패스 선명상'으로 분별심을 멈추고 감정에 끄달리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법회에 앞서 진우 스님은 청담기념관에서 진행 중인 '반세기 만에 나투신 청담 대종사 展'에서 청담 대종사의 법신 사리를 친견했다. 임은호 기자

## 보광사, 고령산 산문 열다…낙성식 및 제막

**故월운 대종사 원력 서린 불사**
**한국-태국간 친선우의 상징**



파주 보광사(주지 혜성 스님)가 4월 27일 산문 일원에서 '보광사 산문 낙성식 및 기념표지석·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한국과 태국 간 불교문화교류를 선도해 온 보광사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故 월운 대종사와 태국 왓포사원 솜텟 프라마하 티라찬 주지 스님의 우의와 축복의 결실로 마련됐다.

보광사 주지 혜성 스님은 산문 낙성 경과보고를 통해 "보광사가 태국과의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더욱 국제적인 사찰로 거듭나게 된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일면 대종사는 치사로 "보광사가 더욱 발전하고 모든 불교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운 대종사도 "해탈문을 지나갈 적에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원인도 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심을 당부했다.

이번 산문 낙성을 있게 한 솜텟 프라마하 티라찬 스님은 "보광사 일주문은 조계종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스님이신 故월운 스님의 숭고한 정신과 깊은 유산을 기리기 위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따뜻한 우정과 깊은 영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낙성식에서는 교구발전 기금 전달식도 있었다. 혜성 스님은 교구장 호산 스님에게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4월 27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 동참, 본부를 홍보하고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과 만났다. 사진은 이사장 일면 스님이 '나만의 희망 연꽃등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일면 스님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생명의 가치와 실천의 소중함을 알렸다.




'절로 되는 기부 108배 챌린지' 코너에서는 수행과 기부문화를 동시에 체험하고자 하는 MZ세대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 오색 연등 아래 '생명의 빛' 밝히다

##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 4.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여 앞둔 4월 27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음악들로 떠들썩했다. 전날 연등행렬에 이어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이 열린 것. 수천 개의 연등이 거리를 수놓았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이 가능한 130여 개의 부스에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온기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다. 그 가운데 유독 묵직한 울림과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부스가 있었다. 바로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의 홍보 공간.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하고 자비행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이 부스는 단지 홍보를 위한 공간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라는 이념 아래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불교계 대표 기관이다. 이들은 올해 전통문화마당에서 '생명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슬로건 아래 작은 불빛이 모이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부스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날 부스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물론 생명존중 메시지를 담은 불교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나만의 희망연꽃등 만들기' '소원 담은 꽃반지 만들기' '절로 되는 기부 108배 챌린지' 등이 그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은 아이들의 웃음과 어르신들의 진중한 시선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특히 '절로 되는 기부 108배 챌린지'는 젊은 층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수행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챌린지는 올해 조계종 사회부가 지원하는 '2025년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한 후 #108배 챌린지 해시태그가 붙은 인증 게시글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리면 1만원이 자립지원청년 치료비로 기부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이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이사장 일면 스님의 헌신적인 현장 활동이었다. 스님은 이날 종일 부스를 지키며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의미를 차분히 설명하고 실천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다.

스님은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꽃등과 꽃반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부스에는 이날 약 6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생명나눔, 4월 27일 우정국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실시**
**일면 스님, 시민들에 직접 홍보**
**기부 108배 챌린지 MZ에 인기**




이날 주변 부스를 돌아보기도 한 일면 스님은 한마음선원이 마련한 어린이잡지 '마음꽃' 부스를 찾아 꽃모양 바람개비를 만들며 축제를 함께 즐겼다.

"장기기증이 무섭다"는 한 시민의 말에 일면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생명은 두려움보다 더 크고 소중하며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잇는 희망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처음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망설이던 시민들은 스님의 정성 어린 설명을 듣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20대 대학생 커플은 나란히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생명이라는 가치라 얼마나 큰지 느꼈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윤재 씨도 "죽음이 무섭기만 했는데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끝에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살아 있는 동안에도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생각에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이 죽음 이후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가장 적극적인 자비행임을 강조하며 "희망등록은 생명이라는 등을 마음에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연등을 밝히는 이유도 결국 다른 생명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함"이라며 "장기기증은 그 자비심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간이식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설명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일면 스님은 1993년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같이 나타난 기증자로부터 간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생명나눔의 장본인이다.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에 후원자들의 자비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수혜자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면서 "삶의 끝자락에서 장기기증을 통해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 또 소외계층에 내민 자비의 손길은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자는 100여 명. 지난해 120여 명에 비해 줄긴 했지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더 큰 수확이다.

최상균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희망등록 신청자 확대 기저에는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데 있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본부사업을 홍보하고 한국 불교문화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회 곳곳에 알리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6월 6일 오전 10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 천도재'를 개최하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6월 9일에는 캄보디아 씨엠립주에 방문해 지역주민에게 의료물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2차 : 1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 “먹·종이 준비하라” 당부, 불사로 꽃피우다

**하얀연꽃절, 4월 25일 경내서**
**‘경봉대선사기념관’ 착공식 열어**
**원산 스님 “수행 서원 현실로”**
**3년 3개월 준비…신행 · 문화공간**



부산 연제구 하얀연꽃절이 4월 25일 경내에서 ‘경봉대선사 기념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참석내빈들이 기념 컷팅식을 하고 있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너는 향후 큰 불사를 하게 될 것이니, 먹과 종이를 준비해서 오너라.”

경봉 스님의 한마디 당부는 한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고, 불사(佛事)의 씨앗이 됐다.

부산 연제구 하얀연꽃절(주지 현중 스님)은 4월 25일 경내에서 ‘경봉대선사기념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착공식은 경봉 대선사의 뜻을 기리는 동시에, 하얀연꽃절 회주 원산 스님이 오랜 시간 간직해온 원력을 실현하는 자리였다.

원산 스님은 경봉 스님의 말씀을 수행자로서 감당해야 할 한 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정성껏 먹을 갈고 새벽마다 지묵을 펴 스승의 휘호를 돕는 일상을 이어갔다. 그렇게 쌓인 경봉 스님의 친필 경구와 휘호는 100여 점에 이르렀다. 이 휘호는 오늘날 기념관 건립의 토대가 되었고, ‘경봉대선사기념관’의 주요 전시자료로 공개될 예정이다.

착공식에는 전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하얀연꽃절 회주 원산 스님(전 통도사 주지)을 비롯해 경봉문도회 소속 스님들과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전 통도사 유나 천진 스님, 전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 중앙종회의원 진각 스님, 남해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 울산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이정걸 하얀연꽃절 신도회장,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 안재권 부산시의회 의원, 권종헌 연제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원만 불사를 기원했다.

원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 도량은 단지 흙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리는 수행과 서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하얀연꽃절이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이 품어줄 자비의 도량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도와 정진의 향이 끊이지 않고, 자비의 손길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불사를 향한 뜻을 꺾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 원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급변하는 시대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얀연꽃절이 부산을 대표하는 치유와 안식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통도사 사부대중 또한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주지 현중 스님은 “수행자의 한길을 걸으며 꿈과 고행의 시간을 지나온 모든 인연이 오늘 불사를 가능하게 했다”며 “사부대중 앞에서 이 불사를 기필코 성취하겠다는 다짐을 삼배와 함께 올린다”고 말했다.

기념관은 대지 6510㎡(1,970평), 연면적 4081㎡(1,235평) 규모로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총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종무소, 대법당, 지장전, 경봉대선사 기념관, 시민 선방, 갤러리, 요사채 등이 들어선다.

이번 불사는 2021년 1월 계획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이날 첫 삽을 뜨기까지 약 3년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됐다.

# BBS 특집 다큐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 5부작 공개

**5월 4일 1부 선공개로 시작**
**화 · 목 · 토요일 순차적으로 방송**
**운부암 집중수행 현장 담아내**

생각을 넘어, 나를 마주하는 시간. 삶을 깨우는 한국인의 수행법이 안방으로 찾아온다. BBS불교방송이 간화선의 깊은 울림을 담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로 시청자들을 초대한다.

BBS불교방송(사장 서진영)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5부작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을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5월 4일 오후 7시 30분 1부 선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목요일 오전 7시 50분, 토요일 오후 2시에 순차적으로 방송된다.

다큐멘터리 1부 ‘생각을 끊는 칼 – 화두’는 화두 참구를 통한 자기 탐구와 수행의 첫 관문을 조명한다. 이어 2부 ‘길 안내자 – 선지식’, 3부 ‘깨달음의 시작, 체험’, 4부 ‘세계로 나아가다’, 5부 ‘수행, 일상이 되다’로 이어지며 간화선 수행의 단계적 여정을 보여준다. 각 회차는 동일 내용을 요일별로 반복 편성해 시청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은 한국불교 수행의 정수인 간화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종교적 차원을 넘어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수행’, ‘행복한 삶을 위한 길’로서 간화선을 소개하며,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쉽고 친근한 구성으로 다가간다. 특히 팔공산 은해사 운부암에서 진행된 간화선 집중수행 현장을 중심으로, 지도법사 수불 스님과 수행 참가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담았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화선 수행 현장도 함께 소개돼 국경을 넘어 세계 일상 속으로 확장되는 간화선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내레이션은 배우 이승기가 맡아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따뜻한 목소리로 시청자와 소통한다.



BBS불교방송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5부작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을 5월 4일부터 방영한다.

BBS불교방송 관계자는 “간화선은 단순한 종교 수행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내적 여정”이라며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이 현대인들에게 치열한 자기 탐구와 진정한 행복의 가능성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 관음사, 수행 기쁨 누릴 ‘법희선열당’ 낙성

**4월 26일 경내서 낙성식 봉행**
**지계염불만일기도 3800일 회향도**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가 법희선열당 불사를 회향하고 수행과 귀의의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사진〉

관음사는 4월 26일 경내에서 ‘관음사 법희선열당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회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 송광사 전 율원장 도일 스님, 미타선원 선원장 하림 스님 등 대덕 스님들과 백승환 신도회장, 이성권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등 지역 내빈과 신도들이 참석해 원만한 불사 회향을 함께 축하했다.

법희선열당은 ‘법을 배우는 기쁨’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간을 지향한다. 1층은 영구 위패를 봉안하는 법당인 ‘자효전’, 2층은 대중 요사채, 3층은 공양간과 추가 요사채로 구성돼 수행자와 신도들의 실질적 수행과 공동체 생활을 지원한다.

이 불사는 2023년 3월 1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5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2024년 2월 8일


골조 및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12월 17일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아 올해 3월 20일에 ‘법희선열당’ 현판을 봉안하며 외형과 명칭을 모두 갖추게 됐다.

회주 지현 스님은 낙성식 법문에서 “법희선열당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기쁨을 얻는 공간”이라며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관음사의 가람 불사가 하나하나 이뤄졌고, 이 지역 신도들의 귀의처와 수행처가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이곳이 존재 이유가 있으며, 법희선열당 또한 여러분 모두의 동참과 가족 같은 인연 속에서 완성된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삼배로 전했다.

이날은 관음사가 진행해 온 지계염불만일기도의 3800일 회향이 겹쳐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지현 스님은 “3800일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처님이 늘 일깨워 주시고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수행의 공덕을 신도들에게 모두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범어사, 조선통신사선 무사 항해 기원제 봉행

**문화재단, ‘조선통신사축제’ 일환**
**261년만 최장 거리 항해 재현**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4월 27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선통신사선 무사 항해 기원제’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조선통신사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범어사는 올해 3월 부산문화재단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조선통신사선 항해는 1763년 제11차 조선통신사 사행(使行) 이후 261년 만에 오사카까지 이어지는 최장 거리 뱃길을 재현하는 것으로, 선현들의 지혜와 우호의 뜻을 계승하고 한일 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대웅전에서 참가 내빈들은 부처님께 향을 올리며 한마음으로 조선통신사선의 평화 항해를 기원했다. 이



후 참석자들은 범어사 박물관을 둘러보며 조선통신사와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나눴다. 이어 남구 용호별빛공원으로 이동해 출항식에 참여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범어사에서 조선통신사선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기원제를 봉행하게 돼 깊은 기쁨고 감사하다”며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번 항해가 바다 위 평화사절이 돼 양국 간 화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오이시 타카오 일본 시즈오카 부시장은 “아쉽게도 이번 조선통신사선은 육로를 따라 시즈오카까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시즈오카까지 함께한다는 뜻으로 무사 항해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준무산장학재단, 대학생에 3억원 전달

**4월 25일 속초시청서 수여식**
**지역 대학생 245명에게 전달**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가 설립한 성준무산장학재단(이사장 지혜 스님)은 4월 25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신흥사 성준무산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준무산장학재단은 속초 지역 대학생 245명에게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올해 수여식은 지난해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됐으며, 저소득 가정 대학생에게는 각 200만원, 다자녀 가정의 성적 우수 대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 장학금이 전달됐다.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해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지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장학금 수여는 성준 대선사와 무산 대선사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나라를 위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이 귀한 인연을 기억해 바르게 자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준무산장학재단은 정호당 성준 대선사와 설악당 무산 대선사의 뜻을 기려 두 스님의 법명을 합쳐 2000년에 설립됐다. 이후 매년 빠짐없이 지역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수혜자 수와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 체육인전법단,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4월 30일 진천 선수촌 법당서**


조계종 체육인전법단(단장 호산 스님)이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30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법당에서 봉축법요식과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 신도국장 영범 스님, 포교국장 청곡 스님, 중앙종회의원 무경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무진 스님, 체육인전법단 사무국장 정진 스님, 진천선수촌 법당 주지 여암 스님, 체육인전법단 지도법사 혜오 스님을 비롯해 체육인불자연합회 문홍식 회장, 진천선수촌 관계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남전 스님이 대독한 법문에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선수들이 선명상을 통해 내면을 관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길러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수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한 송기철 우슈 국가대표 선수는 “치열한 훈련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않고, 정정당당한 경기로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선수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동래경찰경승실, “법 수호” 봉축 법요식

**팥빵, 음료수 600인분 전달**


부산 동래경찰서경승실(경승실장 자관 스님)이 불기 259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 동래경찰서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동래경찰서 경승실장 자관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과 김명상 동래경찰서장, 경찰 불자 등이 함께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자관 스님은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가 늘 함께하길 발원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명상 동래경찰서장은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경찰서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경찰의 사명에도 자비와 평화의 정신이 깃들기를 바라며 경찰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시는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래경찰경승실은 빵과 음료수 600인분을 동래경찰서에 전달하며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들에 감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부산불교문인協, 발달장애인과 봉축시화전

**4월 25일~5월 6일, 홍법사 경내**


사단법인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차정연)가 4월 25일 부산 홍법사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봉축시화전’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시화전은 5월 6일까지 홍법사에서 진행되며 문인협회 회원 작품 30편과 라온누리 소속 발달장애인 작품 30편이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실상문학상 운영이사장 심산 스님,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과 문인협회 회원, 이석래 부산문인협회전임이사장, 문다영 라온누리 원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심산 스님은 “시와 그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정연 이사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문인협회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힘 모아 준비한 오늘 이 시화전은 매우 뜻깊고 감명 깊은 행사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화엄사 홍매화, ‘국민 홍매화’로 자리매김”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성료**
**대상에 ‘홍백의 만남’ 선정**
**1178점 접수…5월 5일 시상**
**“분열 치유하는 ‘꽃’ 성장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5회 화엄사 홍매화 ·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대상 수상작인 서재민 씨의 ‘홍백의 만남’.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개최한 ‘2025 제5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화엄사는 4월 25일 홈페이지와 BBS 불교방송을 통해 콘테스트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콘테스트는 ‘화엄! 홍매화의 향기를 머금고’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1178점(전문작가 부문 493점, 휴대폰 카메라 부문 685점)의 작품이 응모됐다. 지난해 1141점, 2023년 897점에 이어 지속적으로 참가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작가 부문 대상(총무원장상)에는 서재민 씨의 ‘홍백의 만남’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교구장 스님상)은 김찬일 씨의 ‘매화향 가득한 밤’, 우수상(부주지 스님상)은 이기성 씨의 ‘인연, 어울림’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휴대폰 카메라 부문에서는 최우수상(교구장 스님상)에 최석민 씨의 ‘나도 홍매화다!’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부주지 스님상 한현주 씨(‘불심에 스민 홍매’), 총무국장 스님상 유진영 씨(‘홍매화의 아침, 그리고 나’), 교무국장 스님상 장태두 씨(‘다시 봄’), 포교국장 스님상 이정재 씨(‘우리도 소녀들 마음으로’), 특별상(리더스포럼 상임대표상) 김은희 씨(‘무제’)가 수상했다.

전영한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지리산 대화엄사의 상징성과 화엄매의 입체적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 촬영을 도입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메타데이터(촬영정보)가 없는 작품, 원본을 과도하게 보정하거나 조작한 사진, 휴대폰 부문에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출품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화엄사는 “홍매화는 코로나 시기 지친 마음을 위로했던 꽃으로, 특히 올해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국민 홍매화’로 자리매김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궂은 날씨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홍매화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관람객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성기홍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은 “올해 봄은 이상 저온, 늦은 폭설, 인근 산불 등으로 다사다난했지만, 33일간 총 22만 명이 홍매화를 관람하는 등 일일 평균 6,700명의 방문객이 화엄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 내 포토라인 무단 침범, 쓰레기 투기, 예불 시간 소음 등 일부 부적절한 관람 행태는 아쉬움으로 남았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관람 문화와 문화유산 보호를 당부했다.

수상작들은 화엄사의 2025년 달력 및 홍보물, 구례군 홍보자료에 활용되며 모든 출품작의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귀속된다. 시상식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년에는 1~5회 수상작 및 추천 작품을 모아 전시하고, 드론 촬영 부문을 신설해 콘테스트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 고창 선운사 불교대학 수계법회

**4월 27일 대웅보전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27일 대웅보전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법회는 선운사 불교대학생과 신도회 임원, 선운사복지재단 관계자,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130명이 동참해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수지했다.

전계사 경우 스님은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조목조목 설하고 수계제자들에게 지계 의지를 확인했다. 수계제자들은 경우 스님에게 직접 연비를 받고 수계증과 금강저를 받으며 참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경우 스님은 “여러분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라며 “삶 속에서도 계를 지키며 정진하는 신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여 서각사, 참선·염불선원 개원

**4월 26일 개원법회 봉행**



부여 서각사(주지 불일 스님)는 4월 26일 복장 점안 및 참선·염불선원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에서 서각사는 참선과 염불이 함께하는 수행도량으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증명법사인 암도 스님은 법문에서 “염불과 참선은 수행의 두 바퀴로, 한쪽만으로는 완전한 수행이 될 수 없다”며 “이 도량은 염불과 참선이 함께하는 곳으로, 수행자들의 안식처가 되어 많은 이들이 정진하고 깨달음을 이루길 바란다”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세계유산 ‘팔만대장경’ 가치 되새기다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정대불사, 무한 행복 여는 길”**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4월 26일 경내에서 ‘제65회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을 봉행했다.〈사진〉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정대불사에 동참할 것을 발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무관 대종사, 성법 대종사를 비롯한 산중 원로스님과 대중스님, 김윤철 합천군수, 이은복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 기관 단체장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기념사에서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나무 경전이 아니라 국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불심과 인내,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새겨진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며 “오늘 우리가 다시 팔만대장경을 숨 쉬게 하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줄 공덕주가 되자”고 당부했다.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염불하면 몸과 마음, 가정과 사회, 국가에 무한한 행복의 향기가 넘칠 것”이라며 “장경보각은 항상 광명을 놓아 중생을 이롭게 하고, 경전을 독송하거나 사경하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대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세계 모든 중생이 정대불사에 동참하면 손가락 튕기는 사이 팔만 가지 문이 열려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것”이라며 팔만대장경 정대불사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은복 유산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팔만대장경은 뛰어난 인쇄 기술과 내구성을 갖춘 세계적 기록유산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신심이 오늘날에도 큰 귀감이 된다”며 “국가유산청 역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대요잡은 탑마당-독성각 옆길-연화문-장경판전 내부-학사대-청화당 옆길-해인도-보경당 앞으로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화엄사, 수행자 마지막 위한 ‘연화대’ 건립

**4월 28일 상량식 봉행**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스님들의 마지막 길을 장엄하게 모시기 위한 전통 다비장 ‘연화대’ 건립을 본격화했다.

화엄사는 4월 28일 경내 기존 다비장 부지에서 ‘화엄사 연화대’ 상량식을 봉행하고 스님들의 열반을 기리는 의식 공간의 새 장을 열었다. 이날 상량된 연화대는 15평 규모의 주심포 형식 팔각 목조건물로 2024년 3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사진〉

화엄사 연화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원으로 건립되는 첫 전통 다비시설이다.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기존의 야외 소각식 다비와 달리 내화벽돌, 가스설비, 방염설비 등을 갖춰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다비 의식을 봉행할 수 있는 구조다. 통도사, 범어사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건립되는 전문 다비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연화대는 스님들이 생을 마무리하는 존엄한 공간”이라며 “수행자의 고귀한 가치를 담아 다비를 봉행하고 신도들과 함께 열반을 기리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칭과 관련해 “연화대는 완공 후 화엄사만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다시 명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설 건립의 초석을 마련한 덕문 스님의 공로도 언급했다. 우석 스님은 “그간 전통 관례에 따라 다비를 해왔지만 덕문 스님의 노력으로 국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정식 다비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화엄사는 상량식에 앞서 역대 선대 조사를 위한 다례재와 부도 참배를 봉행하며 수행 전통과 불교 의례의 정통성을 되새겼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 삼존불 점안식

**4월 26일 대법당서 봉행**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선원장 혜수 스님)은 4월 26일 2층 대법당에서 삼존불 및 아미타후불탱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안식에는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을 비롯해 연화사 범일 스님, 원효암 지범 스님, 통도사 승가대학 35회 도반과 대중스님, 홍태용 김해시장, 민홍철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현진 스님은 법문에서 “지혜와 자성심으로 쌓은 도량은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지리산, 재즈 선율로 물들다

**천은사, 재즈 페스티벌**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4월 26일 경내 템플스테이 앞마당에서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를 주제로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페스티벌은 피아니스트 전용준, 베이시스트 김대호, 재즈보컬 문미향이 함께 무대에 올라 재즈 거장 텔로니어스 몽크(Thelonious Monk)의 대표곡들과 현대 재즈 음악을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울산불교종단협 태화강연등축제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4월 25일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둔치일원에서 ‘불기 2569년 태화강연등축제’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울산불교연합회장 혜원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봉행위원장 정일 정사, 김두겸 울산시장, 윤건우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혜원 스님은 봉축사에서 “연등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문화의 향연이자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태화강연등축제는 ‘야, 광명이다’라는 주제처럼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자, 불교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군산사암연합회 연등문화축제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는 4월 25일 군산 수송체육공원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사진〉

회장 도연 스님은 “국태민안과 세계평화, 조국 평화통일이 속히 이뤄지기를 발원한다”며 “불교의 목적은 연기법을 성취하고 자아를 완성하는 데 있으며, 전법과 포교가 불교의 생명인 만큼 사부대중이 적극 전법 활동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적사 회주 성우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좋은 일을 하면 그날이 좋은 날이 되고, 나쁜 일을 하면 그날이 불행한 날이 되므로, 날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천안불교사암연합회 봉축법요식



천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 만수사 주지)는 4월 26일 천안역 동부광장 특설무대에서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회장 도언 스님은 봉축사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며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 불자의 수행이자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연합회 원로의장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 원로의원 인경 스님(천불사 주지)을 비롯해 연합회 스님들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문진석·이재관·이정문, 이병도 천안교육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전북봉축위원회 ‘꿈타는 연등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진성 스님)는 4월 26일 전라감영에서 ‘다시 꿈이 시작된다. 꿈타는 연등회’를 주제로 소통과 화합의 연등문화 축제를 개최했다.〈사진〉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우리는 각자 본래의 자성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분별과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의 광명을 잃어버린다”며 “연등을 밝히는 이 순간, 자기 안의 등불을 다시 바라보고 깨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은 봉축사에서 “무기가 아닌 등을 들고, 자비로 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여수사암연합회 봉축 문화축제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4월 25일 여수시청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4월 26일 이순신광장에서 ‘제2회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점등법회는 기념식과 장학금 전달, 관불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민원실 앞으로 이동해 시청 앞 교차로에 설치된 봉축탑을 점등했다.

4월 26일 열린 문화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전통문화 체험 부스를 시작으로 1부 법요식과 2부 시민음악회가 이어지며 시민과 불자 등 3000여 명이 한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티베트 불교계, 판첸 라마 36번째 생일 축하

**中의해 판첸 라마 실종 30년째**
**망명 티베트 불교계 나서 호소**
**"그는 여전한 정신적 지도자"**
**인식 제고 촉구 캠페인 진행도**

박영빈 객원기자


판첸 라마의 생일을 축하하는 따씨훈뽀 사원 대중들. 사진출처=파율

티베트 불교계 최고위 지도자 중 한 명이자, 지난 1995년 실종된 11대 판첸 라마 겐뒨 최끼 니마의 생일을 기념하고 그의 실종 30주년을 맞이해 인식제고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인도의 망명 티베트 불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남인도 빌라쿠피에 소재한 따씨훈뽀 사원에서 진행된 행사에 대해 현지 티베트 뉴스 전문 온라인 매체인 '파율'이 상세히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는 제11대 판첸 라마 겐뒨 최끼 니마는 1995년, 여섯 살의 나이로 제14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10대 판첸 라마의 환생자로 공인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 직후인 1995년 5월 17일 중국 공산당은 그와 그의 가족을 강제로 납치, 구금했으며 어용 판첸 라마인 걜첸 노르부를 11대 판첸 라마로 내세웠다. 이후 겐뒨 최끼 니마는 세계 최연소 정치범으로 불리며 티베트 망명정부와 불교계,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 인권 단체들은 그의 건강과 행방을 밝힐 것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중국 정부는 "건강하며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목요일 11대 판첸 라마의 36세 생일을 기념하는 한편 그를 구금한 중국 정부를 규탄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행사가 따씨훈뽀 사원에서 봉행됐다. 따씨훈뽀 사원은 판첸 라마의 주석 사원으로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체에 소재하고 있으나 이곳에서 망명한 대중스님들에 의해 남인도 망명촌에 재건됐다.

따씨훈뽀의 주지 지꺕 린포체는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호소를 전하며 "판첸 라마는 30년 동안 세계 최연소 정치범이자 실종된 상태에서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남아있다. 그의 기본권과 자유는 지체없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판첸 라마의 행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오랫동안 거부해 온 것을 규탄하며 티베트의 종교적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다람살라에서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정보국제관계부를 통해 판첸 라마의 생일과 실종 30주년을 기념하는 한 달간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4월 25일부터 1995년 판첸 라마가 납치된 날인 5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고 그의 신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지를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 태국 국왕, 부탄 국왕 초청 국빈 방문

**2016년 국왕 즉위 이후 첫 공식 국빈 방문**


태국의 왕과 왕비가 4일간 부탄에 방문해 다양한 불교의식을 함께했다. 사진제공=부탄 국왕 공식 페이스북

태국의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과 수티다 왕비가 지난 4월 25일부터 4일간 부탄을 국빈 방문했다고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가 4월 28일 보도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태국 국왕 즉위 이후 첫 공식 국빈 방문으로, 부탄의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 국왕과 쭌 페마 왕비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그메 국왕은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국왕 부부를 부탄 전 국민이 따뜻하게 환영했다"며 "이는 양국 간 우정과 선의의 관계를 드러냈다"고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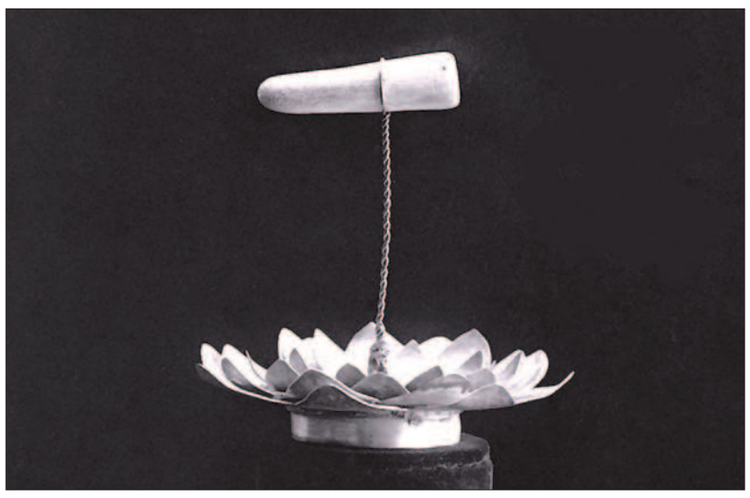
부탄 주재 태국 대사 마까와디 수밋 모르는 부탄 매체를 통해 "이번 방문은 현 국왕의 첫 해외 국빈 방문이자, 양국에게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왕실은 오래전부터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 방문으로 그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다"며 "태국 전 국민이 이 의미 있는 순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는 국민 간의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하 국왕 부부는 26일 도르덴마(Buddha Dordenma) 불상 앞에서 진행된 불교 법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부탄 승려 74명과 태국 승려 74명이 함께 참여해 공동 축원을 올렸다. 이밖에 마하 국왕 부부는 데첸촐링 왕실 프로젝트 방문, 파로 지역의 둥카르종 등 부탄 문화 체험 및 불교 유적지 순례, 겔레푸 명상 도시 프로젝트 탐방 등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부탄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금강승 불교 국가다. 8세기 구루 린포체(파드마삼바바)에 의해 불교가 전파된 이후, 드룩파 카규파와 닝마파 전통을 주로 따라왔다. 부탄 인구의 약 85%가 불교도다. 태국은 테라와다 불교 국가로, 2021년 기준 인구의 92.5%가 불교도다. 박정현 객원기자

# 스리랑카, 16년 만에 부처님 치아 사리 공개

**4월 18~27일, 캔디 한 사원 전시**
**10일간 약 200만명 참배객 몰려**


스리랑카에서 공개된 부처님 치아 사리. 사진제공=asianreviewofbooks.com

스리랑카는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당국은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캔디(Kandy) 시에 위치한 스리 달라다 말리가와(Sri Dalada Maligawa) 사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전시했다. 스리 달라다 말리가와 사원은 고대 왕궁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신 세계적으로 중요한 불교 성지다. 이 사원은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부처님의 치아 사리는 301~328년 키르티 스리 메가바르나(King Keerthi Sri Meghavarna) 왕의 통치 시기에 고대 인도 도시 칼링가(Kalinga)에서 헤마말라 공주와 단타 왕자에 의해 스리랑카로 옮겨졌다. 이후 천도 때마다 유물도 여러 사원으로 옮겨졌으며, 1590년에 캔디 시로 이전된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 보관돼 왔다.

해당 치아 사리는 스리랑카 불교의 상징이자 전 세계 불교계에서 숭배 받는 유물 중 하나다. 스리랑카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싱할라 불교도들에게는 영적·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국 경찰에 따르면 치아 사리가 공개된 첫날 약 2시간 30분 만에 12만 5천 명 이상이 사원을 방문했다. 이에 당국은 이튿날부터 하루 관람 시간을 전격 연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FP통신을 통해 "10일간의 행사 기간 중 약 200만 명의 참배객이 캔디를 방문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 중 유물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돼 스리랑카 당국은 해당 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시장 내 촬영은 일절 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전시 기간 중 실제로 촬영된 것인지 혹은 디지털 조작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누군가 사원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심각한 보안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 베트남, 2025 UN 베삭데이 축제 개최

**5월 6일부터 3일간, 호치민시서**



베삭데이 축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VBS. 사진출처=VIETNAN.VN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베트남 불교승가회(VBS)가 UN 베삭데이 축제 개최에 대하여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4월 22일 베트남 공식 뉴스 플랫폼인 'VIETNAN.VN'은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대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올해 베삭데이는 5월 6일부터 3일간 호치민시에서 진행되며, 베트남은 지금까지 총 3번의 베삭데이 축제를 개최한바 있다.

VBS측은 "올해 베삭데이 축제의 슬로건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연대와 관용: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불교의 지혜'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세계평화, 용서와 치유, 지속 가능한 미래와 같은 하위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베삭데이 축제 조직위원회는 "현재까지 85개국과 지역에서 약 1200명의 국제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국내에서는 약 1500명의 불교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여러 학회와 세미나를 위해 578건의 영어 논문과 330건의 베트남어 논문을 접수받았다"고 전했다.

조직위 측은 "이번 축제를 위하여 VBS는 베트남과 인도 양국 정부의 합의 하에 인도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인 부처님 진신 유골사리를 베트남으로 특별히 이운해 축제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현재 축제 프로그램에는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연등 점등식, 108그루의 보리수 식수 등이 예정돼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 실록박물관 전관 개관…월정사 박물관 마을 '화룡점정'

진부=신중일 기자



4월 30일 열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조정래 소설가 등이 개관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새 조성**
**전시, 체험 콘텐츠 등 대폭 강화**
**5월 1일 정식 개관…특별전 진행**
**오대산 사고서 실록 말렸던 '포쇄'**
**참여인사 기록 〈심헌록〉 첫 공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관람객을 위한 전시 시설과 콘텐츠 확충을 마치고 5월 1일 전관 개관했다.

진부 월정사 박물관 마을에 자리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관장 김정임, 이하 실록박물관)이 전시 시설과 콘텐츠 확충을 마치고 5월 1일 전관 개관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한강 시원지 박물관에 이어 실록박물관까지 정식 개관을 마침으로써 월정사의 오대산 박물관 마을은 '화룡점정'을 찍게 됐다.

실록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월정사가 중심이 된 환수위원회의 노력으로 110여 년 만에 환지본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과 조선왕조의궤(이하 '의궤')의 원본을 만날 수 있는 전문박물관이다.

지난 2023년 11월 개관했으나 상설전시·교육·영상 콘텐츠 확충과 어린이박물관 조성 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임시 휴관했으며, 10개월간의 단장을 마치고 이번에 전관 개관하게 됐다.

### 실록 말렸던 포쇄 기록 만나다

전관 개관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전 '오대산사고 가는 길'은 실록박물관 관람의 주요 포인트다.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에서는 실록을 보관했던 오대산사고의 설립과 운영, 쇠퇴의 역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40여 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문화유산은 '포쇄(曝曬)' 관련 기록들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실에서는 국가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산 속 깊은 곳에 외사고(外史庫)를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오대산 사고도 조성됐다. 사고들이 산속에 있다 보니 습기에 약한 서적 관리를 위해 사관들을 파견해 주기적으로 책을 꺼내 바람에 말리는 작업을 했는데, 이를 '포쇄'라고 한다.

포쇄를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사관들은 이를 영예롭게 여겨 공식 기록 외에도 시문(詩文)이나 암각문 등의 자취를 남겼다. 번암 채제공, 추사 김정희와 같은 명사들도 젊은 시절 포쇄를 위해 오대산 사고에 다녀갔고, 포쇄 후에는 관동 지역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

실제 추사 김정희는 포쇄 이후 강릉 오죽헌에서 〈심헌록(尋軒錄)〉이라는 방명록에 이름을 남겼는데, 이 방명록이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심헌록〉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270년 동안 강릉 오죽헌을 다녀간 인사들의 방명록으로, 1662년 권상하(權尙夏)부터 1932년 이항구(李恒九)까지 114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또한 전시에서는 동여도(東輿圖)와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 등 조선시대 지도와 화첩을 통해 오대산사고를 다녀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오대산사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동여도에는 오대산 사고 등 사고들이 위치가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어 흥미롭다.

신재근 실록박물관 학예연구사는 "1606년 강원도 오대산에 설치된 '오대산 사고'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평창 지역에 지어졌지만 3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왕실에 의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실제 조선 조정에서는 오대산 인근 지역에서 참봉을 임명하고 수직승도(건물을 관리하는 스님), 수호군(사고를 지키는 군사) 등을 구성해 오대산 사고를 지키게 했다"면서 "국가의 중요도서를 보존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 그들의 뒷이야기를 이번 전시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 실록 속 동물 친구 만나볼까

이번 리뉴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실록과 오대산 사고에 흥미를 갖도록 새로 조성한 어린이박물관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숲속 임금님의 보물창고, 오대산 사고'라는 주제로 고양이, 앵무새, 호랑이, 여우, 원숭이, 낙타, 코끼리 등 실록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캐릭터화 해 실록과 의궤의 제작 과정 및 보관 방법 등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오대산사고의 실록을 보존하는 건물인 '사각(史閣)'을 본떠 만든 공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꾸몄으며, 실록을 만들고 보관했던 방법 등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게임 형태로 구현했다.

### 실록 · 의궤 편찬부터 환수까지

실록박물관은 실록의 원본을 상시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만큼 실록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를 구성했다. △1부 '깊은 산속에 품은 조선왕조의 역사, 오대산사고' △2부 '조선왕조실록, 역사를 지키다' △3부 '조선왕조의궤, 왕조의 모범을 보이다'로 구성된 상설전시실은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던 실록과 의궤의 편찬과 분상(分上)부터 1913년에 반출된 후 110년 만에 오대산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아냈다.

김정임 실록박물관장은 "실록박물관을 국가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실록과 의궤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갖춘 세계적 박물관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조선왕조실록·의궤 연구·조사·전시·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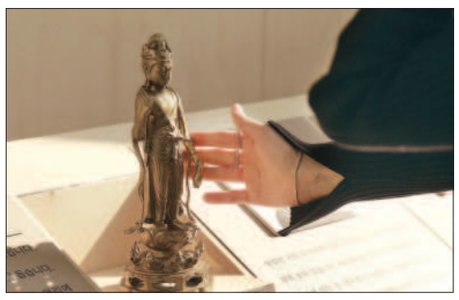
전관 개관에 앞서 4월 30일에는 개관식이 진행됐다. 개관식에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선덕 원행 스님을 비롯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재원 국회의원, 심재국 평창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실록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 선림원지 불상, 만져보며 알아가요

## 국립춘천박물관 '모두 위한 문화놀이터' 조성

**불상 모형 촉각전시물 활용**
**'배리어프리' 콘텐츠 눈길**


환조로 제작된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촉각체험물을 관람객이 체험하고 있다.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전시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수경)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촉각전시물 체험 공간 '모두를 위한 문화놀이터'(이하 문화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5월 1일부터 상시 개방한다.

본관 1층에 있는 문화놀이터에는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과 고려 초기 강원 지역 철불을 대표하는 원주 학성동 출토 철조약사불좌상(보물)을 모형화 한 촉각체험물 8점이 설치됐다. 축소한 보살상을 환조 형태로 제작해 관람객이 손으로 만져보며 전체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각의 환조 체험물 앞에 음성안내기를 설치해 소리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나아가 불상과 보살상 각 세 부분을 부조로 만들고 각각 풍부한 설명을 곁들이고 이에 대한 점자를 마련해 관람객이 세부 표현까지 이해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다른 박물관 촉각체험물과 차별화되는 기획이다.

'모두를 위한 문화놀이터'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콘텐츠가 반영된 공간이다. 전시실 출입구부터 체험 시설을 안내하는 촉지도와 점자 설명문, 음성 안내기가 있고 촉각전시물 체험대까지 인도하는 점자 블록이 바닥에 부착돼 있다. 점자 블록을 대각선으로 설치해 이용자가 공간을 가로질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간 가장자리로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또한, 전시품 수어 해설 영상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 관람객의 전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립춘천박물관 문화놀이터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 대형 괘불 시초 '무량사 괘불도' 국보 지정

대형 괘불의 시초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 〈삼봉선생집〉권7, 〈동국이상국전집〉권18~22·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을 자랑한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가유산청 지정 공고 발표**
**대방광불화엄경소 등 보물로**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던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전하고 있다.

괘불도의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의 경사다. 국가유산청은 "화기(畵記)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畵題) 등이 명확히 밝혀져 있고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영향력이 큰 괘불을 기준으로 국보 지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보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의 불화다. 국가유산청은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종교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면서 "특히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 형식으로, 이 같은 장엄신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화기를 통해 법경·혜윤·인학·희상 스님 등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 보다도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彌勒)'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 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소〉권118은 당나라 승려 징관(738~839)이 지은 〈화엄경수소연의초〉를 송대 승려 정원(1011~1088)이 상세하게 해설을 단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전체 120권 중 권118에 해당하는 경전이다. 신중일 기자

# 〈불교학연구〉, 韓불교 최초 스코퍼스 등재

**불교학연구회 발간 학술지**
**세계적 학술 인용 DB 평가**
**"국제적 학술지 위상 확보"**

불교학연구회(회장 김원명)가 발행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가 세계적인 학술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에 공식 등재됐다.

'스코퍼스'는 글로벌 출판사 엘비어스(Elsevier)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용 데이터베이스다. 전 세계 5000여 개의 학술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저널·회의록·단행본 등을 포괄하며,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색인화하고 있다. 엄격한 선별과 심사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항목으로는 논문 품질, 심사 과정의 투명성, 국제 접근성, 인용도 등이 있다. 한국 종교 관련 학회, 연구소 중에서는 서강대 종교문제연구소의 〈한국의 종교(Journal of Korean Religions)〉만이 스코퍼스에 등재돼 있다.

2000년 12월 창간호를 발간한 〈불교학연구〉는 2015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불교학 분야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우수등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번 '스코퍼스' 등재로 〈불교학연구〉는 한국 불교학의 중심 저널로서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한국어 논문을 중심으로 운영된 학술지가 국제적 평가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원명 회장은 "〈불교학연구〉는 한국어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됐음에도 '스코퍼스'에 등재된 드문 사례다. 특히 국내 연구자들의 활발한 투고와 학문적 완성도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점이 의미가 크다"면서 "이는 인문학계에서 영어 중심주의를 넘어, 한국어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30~5/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꽃비 오니 봄날이다 | 동은 | 조계종출판사 | 6 | 진우스님의 금강경 강설 | 진우 | 김영사 |
| 2 | 제발 걱정하지 마라 | 진우스님 | 도서출판동국 | 7 | 돈황본 육조단경 | 성철스님 | 장경각 |
| 3 | 초역 부처의 말 | 코이케 류노스케 | 포레스트북스 | 8 | 매일매일 채식밥상 | 홍승 | 담앤북스 |
| 4 | 선 스승의 편지 | 원순 | 법공양 | 9 |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 인해, 명오 | 민족사 |
| 5 | 동자승 컬러링100 | 용정운 | 조계종출판사 | 10 | 정관스님 나의음식 | 정관, 후남셀만 | 월북 |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한글아함경*재개정판 | 고익진 엮음 | 담마아카데미 | 6 |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 태공 월주 법문집 | 민족사 |
| 2 |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 김성철 | 오타쿠 | 7 |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 틱낫한/허우서,허주형 | 운주사 |
| 3 | 부처님 생애(만화불교이야기1) | 김정빈/최병용 | 솔바람 | 8 |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 용수 지음/청목 주석 | 오타쿠 |
| 4 | 맛지마니까야(2) 중간길이로 설하신 경 | 대림 스님 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9 |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개정판) | 월폴라라훌라/전재성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 5 |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입문)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10 | 청정도론(1) | 붓다고사/대림 | 초기불전연구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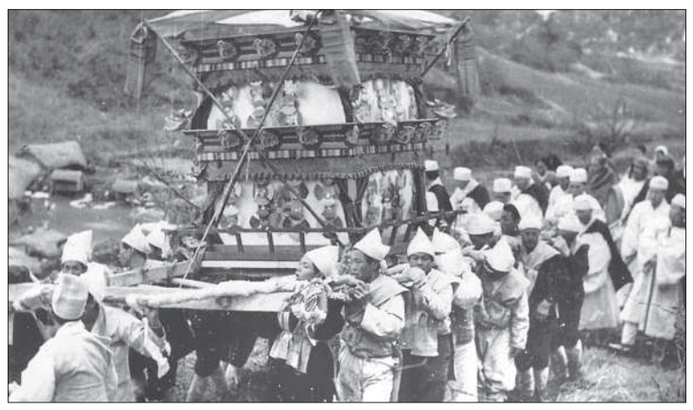
# 실천과 화합의 길 제시한 원력보살



만암평전
김택근 지음
조계종출판사
3만3000원



조계종 초대 종정이자 근현대 원력보살인 만암 대종사.



만암 스님은 1957년 법랍 71세, 세수 81세로 원적에 들었다. 사진은 만암 스님의 운구 행렬. **사진 제공=조계종출판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가운데)과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김택근 작가가 4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암 평전〉 출간 경과와 의의를 설명했다.

**4년 조사로 되살린 스님의 삶과 가르침**

**격동의 시기에 보여준 쉼 없는 보살행**

**"수행·교육·복지에 매진한 선지식"**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조계종 초대 종정이자 근대 한국 불교계의 원력보살인 만암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만암 평전〉이 출간됐다. 성철·용성 스님과 김대중 전 대통령 평전을 집필한 김택근 작가가 4년간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통해 스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낱낱이 담아냈다.

만암 종헌(1876~1957) 대종사는 1886년 백양사로 출가해 구암사, 해인사, 선암사 등에서 수학했다. 23세 때 백양사 운문암에서 환응 스님에게서 강석을 물려받고, 39세에 물외암에서 정진해 깨달음을 증득한 후 평생 수행과 교육에 매진했다. 27세에 이미 강백으로 명성이 높아 제방에서 강의했을 뿐 아니라 '인재 불사가 곧 항일'이라는 믿음으로 1909년 현대적 교육기관인 광성의숙을 세웠다. 1916년 폐허가 되다시피 한 백양사의 주지를 맡아 가람을 일신했고 1929년 조선불교승려대회 의장에 선출됐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이었던 스님은 군인들이 사찰을 불태우려 하자 홀로 법당에 앉아 "나도 함께 태우라"며 대웅전을 지켜냈다. 이듬해에는 석전 스님과 한암 스님의 뒤를 이어 조선불교 제3대 교정(敎正)에 추대됐다. 이때 정화를 둘러싼 비구-대처승 간의 분규가 발생하자 정치권의 개입과 폭력적인 방식 대신 이사판 제도 도입, 수행승과 교화승의 공존을 통한 점진적 정화운동을 주창했다.

1954년 조계종 제1대 종정에 오른 후에는 종조를 태고보우국사에서 보조지눌국사로 바꾸는 문제가 불거지자 "종조를 바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환부역조(換父易祖)다"라고 탄식하고 자리를 내던지고 백양사로 돌아왔다. 〈만암 평전〉은 당시 스님의 고뇌와 결단을 스님이 발표한 선시와 '대한불교 문제에 대한 제언' 등의 글을 통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어지러웠던 근대사에 남긴 만암 스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훼손된 한국불교를 치유하고 수행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복지와 교육에 매진한 스님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진다. 부록으로 〈만암문집〉에서 스님의 뜻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글 일부를 가려 담아 이해를 돕는다.

김택근 작가는 "만암 스님은 평생 누구에게도 속가 이름을 알리지 않았고, 누구도 스님이 늡고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수행자의 길'에서 결코 벗어남이 없는 분이었다"며 "스님께서 오늘날 살아계신다면 이념 대립을 타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셨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발간사에서 "수행과 교화, 전법에 일생을 매진하신 만암 큰스님의 쉼 없는 보살행은 지금의 조계종이 수행공동체로서 여여하게 존속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며 "만암 대종사의 한걸음 한걸음은 오늘날에도 승가의 표준이 되고 존경의 사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추천의 글에서 "큰스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비 실천의 여정'"이라며 "평전을 통해 사부대중과 세간의 더 많은 이들이 만암 큰스님의 실천적 삶과 지혜를 공유해 한국불교와 대한민국 공동체에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 새로 나온 책

### 공동선 실현 위한 '공적 불교' 제안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구상진 지음
운주사
3만3000원

불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원불교학술총서 28권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독교 사상의 산물로 해석하거나, 반대로 일부 종교인들이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곧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사회 정의와 공동선 실현에 참여하는 '공적 불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검사와 대학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하는 마음공부



숫타니파타 마음공부
김성옥 지음
유노책주
1만9000원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진다.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진다. 집착하는 대상은 사람에게 근심이 된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할 것이 없다."-〈다니야의 경〉 34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며 경전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온 저자가 가장 오래된 경전이자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는 〈숫타니파타〉를 현대인들을 위해 풀어 썼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에서 외부의 평가나 불안, 번잡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를 읽어 내는 식이다. 불안, 관계, 욕망, 자아, 죽음 등의 문제를 〈숫타니파타〉 속 게송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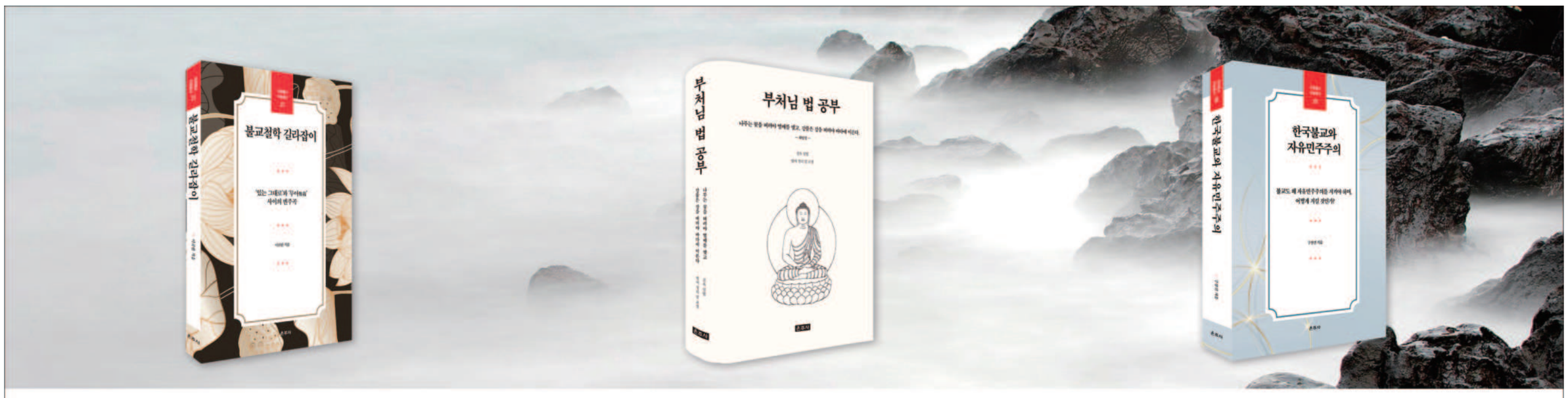
### 아이와 함께하는 환상적 명상 여행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디르크 그로서, 제니 아펠 지음
추미란 옮김
불광출판사 / 1만9000원

"우리가 너에게 주는 마법의 선물은 웃음이야. 이 마법의 웃음이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는 아이들 마음에 평화와 사랑을 길러 주고 내면에 깃든 자신만의 지혜와 힘을 계발하도록 돕는 명상 책이다. 난쟁이, 마법사, 요정 그리고 숲속 동식물들과 함께 떠나는 23편의 환상적인 모험을 통해 아이들은 때로 화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나아가 자신이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음도 깨닫게 된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 곁에 앉아 읽어 주면 함께 명상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불교철학 초심자들을 위한 안내서!
불교철학 길라잡이
2,500여년에 걸친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를 오늘의 언어로 보여주는, 불교의 지적 전통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이다.
이규완 지음/신국판/276쪽/값 20,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자연의 법문 전하는 '정원 포교'



정원예찬
현진 스님 지음
담앤북스 / 1만7200원

**자연의 법문 전하는 '정원 포교'**
**정원 가꾸며 느낀 사유와 깨달음**
**"지금, 당신의 정원이 피어납니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누가 나에게 왜 정원 일에 몰두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원을 통한 전법'이라 말한 적 있다. 이른바 '정원 포교'라 말하면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데, 꽃과 나무를 가꾸며 자연에 기대어 휴식하고 치유하는 길을 일러 주는 역할이다."

불교계 대표 문사(文士) 현진 스님의 두 번째 '정원 에세이' 〈정원 예찬〉이 출간됐다. 2022년 선보인 〈수행자와 정원〉의 연작으로, 13년째 '위로와 명상'을 주제로 청주 마야사 정원을 가꾸며 느낀 사유와 깨달음을 담았다.

산사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흙을 만지고 꽃나무를 키우는 것을 넘어, 하루하루를 담박하게 살아내는 수행이자 세상과 만나는 조용한 대화다. 그래서 현진 스님은 꽃과 나무가 '스스로[自] 그러한[然]' 자연의 법문이라고 말한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매서운 추위도 때가 되면 봄에게 길을 비켜 주고, 몰아치던 폭풍우도 다음 날 눈부신 태양에 물러간다. 어김없는 자연의 법칙이자 순환이다.

그러나 정원이 전하는 자연의 법문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진 스님은 매일 호미로 풀을 솎아내고 회양목을 들여와 촘촘히 심고 새집을 만들어 나무마다 둥지를 틀게 한다. 또 진딧물이 극성일 땐 약을 치고 은행나무에 매달아 놓은 그네를 손보고 주변 낙엽도 긁어낸다. 그러니 매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작업복 차림으로 지낼 수밖에.

이렇게 정원 일로 몸이 고될 때면 '마당 멍'을 한다.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한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이 절로 정리된다. 스님은 "어떤 일이든 집중할 때 사유의 뜰이 넓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전제가 되었을 때 충전도 가능하고 휴식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원 예찬〉에는 현진 스님이 13년간 청주 마야사 정원을 가꾸며 느낀 사유와 깨달음이 담겨 있다. 봄꽃이 활짝 핀 마야사의 풍경. 사진 제공=담앤북스

"늘 탈출하고 싶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자리가 알고 보면 아름다운 꽃자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힘들어도 세월의 끝에 서서 보면 그때가 꽃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불만이고 시답지 않아도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종래엔 꽃자리일 것이다."

현진 스님의 글은 쉽고 간결하고 담백하다.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느낌 그대로를 꾸밈없이 전달한다. "쉬운 문장으로 남녀노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명문"이라고 말하는 스님의 '명문'과 마야사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로 자연의 법문을 들어보자.

# '일타 강사' 원영 스님의 금강경 해설



이제서야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불교' '반야심경' 이어 세 번째**
**"핵심은 '상(相)' 취하지 말라"**
**'마음 비우는 법' 알려주는 경전**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일타 강사' 원영 스님이 이번엔 〈금강경〉의 세계로 안내한다.

전 세계 불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기도 하다. '소의경전'이란 각 종단의 근본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을 말한다. 그렇다면 〈금강경〉에 담긴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

"〈금강경〉의 핵심은 말하자면 '상(相)을 취하지 말라(불취어상, 不取於相)'예요. 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건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놔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보는 것도, 내가 가진 생각도,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즉 집착하는 것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죠. 〈금강경〉에 공(空)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공 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인 이유입니다."

이어 원영 스님은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전이 〈반야심경〉이라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인식론적 공을 이야기하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며 "〈금강경〉은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말한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시청했을 BBS TV 프로그램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중 〈금강경〉 강의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회에 달할 만큼 인기 영상이다. 그만큼 〈금강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자, 스님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금강경〉의 핵심을 짚어 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은 2시간짜리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었던, 한 걸음 더 들어간 강의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한다"는 스님의 강연 스타일은 그대로 담되, 경전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설명이 아닌 일상 속 쉬운 언어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사용했다. 또 복잡하게 느껴질 만한 개념은 표로 정리해 이해를 돕는다. 책을 읽기 전 불광미디어 유튜브에 게재된 신간 소개 영상도 참고할 만한다.

전작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와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이 불교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친절하면서도 재미있게 전했던 것처럼, 이 책은 따뜻한 설명으로 〈금강경〉에 담긴 지혜를 알려줄 것이다.

저자 원영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하나조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과 교육아사리,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청룡암 주지로 BBS불교방송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진행과 칼럼 연재 등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령 기자

원영 스님의 책소개 영상 바로가기▶

# 불전 한어 해석에 필요한 문법서



중국어 역사문법
오타 다쓰오 지음 / 종묵 스님 옮김
눌와 / 4만5000원

중국어 문법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한 책이다. 일본의 중국어 학자 오타 다쓰오가 1957년 쓴 책으로, 일본 학자의 저술임에도 중국 베이징대학 중문과 교수들에 의해 베이징대학출판사에서 출판될 만큼 정평 있는 문법서다. 우리말 번역은 종묵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이 맡았다.

그간 중국어 문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불전 한어를 포함해 전체 중국어 문법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1부는 서론으로 현대 중국어 문법의 개요를 간결히 정리하고, 2부에서는 중국어 문법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다룬다. 거시적인 문법 체계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된 개별 어휘 사례를 다양하게 다뤘다. 단, 현대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고대어만의 문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규갑 연세대 중어중문과 명예교수는 추천사에서 "60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고대문법과 비교를 통해 현대문법을 설명함으로써 문법 전반을 통시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국어 문법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의의를 짚었다. 통상 문법 연구는 공시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성과도 많이 축적되었으나, 통시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번역을 맡은 종묵 스님은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로,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하나조노대학에서 중국불교와 선불교를 전공해 학위를 취득했다. 하나조노대학 재외연구원, 베이징대학·칭화대학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주요 논문으로 「불전한어의 시급한 새로운 인식」이 있다.

스님은 일본 유학 당시 이 책을 접하고 우리말로 번역되길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자 직접 번역을 시작했다. 초벌 번역 후에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여러 인연으로 가까스로 이번에 출간이 성사됐다.

이규갑 교수는 "종묵 스님은 일본 학자의 시각과 중국 학자의 관점을 통합하고 한국인의 생각을 더해 중국어법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학자"라며 "그런 의미에서 스님이 중국어법학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종묵 스님은 "〈중국어 역사 문법〉은 예문에 많은 불교 한문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근대한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조당집〉이 빈번히 인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출간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인문학 여러 분야의 한문자료를 보며 문장 해독에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 두고 자주 살펴보게 될 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했다.

여수령 기자


"짧은 인생에 주저할 겨를이 있는가?"

이 우주, 모든 존재를 위한 진실의 노래
강직한 지혜와 용기를 담은 깨달음의 찬가

다시 한 번, 진정한 자유를 향해!

성聖과 속俗을 오가며 깨달은 세상의 이치를
감각적인 사유의 언어로 길어 올린
자현 스님의 두 번째 감성 법문



한 수행자의 진지한 자기 고백은 돌아서면
잊게 되는 멋들어진 힐링의 문장이 아니다.
대신 단단한 바위와 같은
강직한 지혜와 용기의 말이다.
그로써 험한 세상의 풍파에 멈춰선
우리를 다시금 전진하게 하는 것이
이 책에 부여된 소임이다.

자현 지음 | 248쪽 | 양장본(올컬러) | 18,000원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다

신화 속 붓다가 들려주는 내 인생의 주인공 되는 법!

괴로움과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야기!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완벽한 삶의 지혜

붓다의 신화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는 고통의 순간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순간들로부터 나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을 방법이 없을까?
천신과 마왕,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들 사이에서 자신의 힘으로
중심을 다잡았던 영웅 붓다.
신화가 된 붓다의 예리한 통찰이
마침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 준다.

동명 지음 | 304쪽 | 20,000원

불교 기도문
매 순간 행복해지는 마음 습관
304쪽 | 17,000원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기도하게 될 때가 있다!"
매일의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까지
모든 날을 위한 생활 불교 기도문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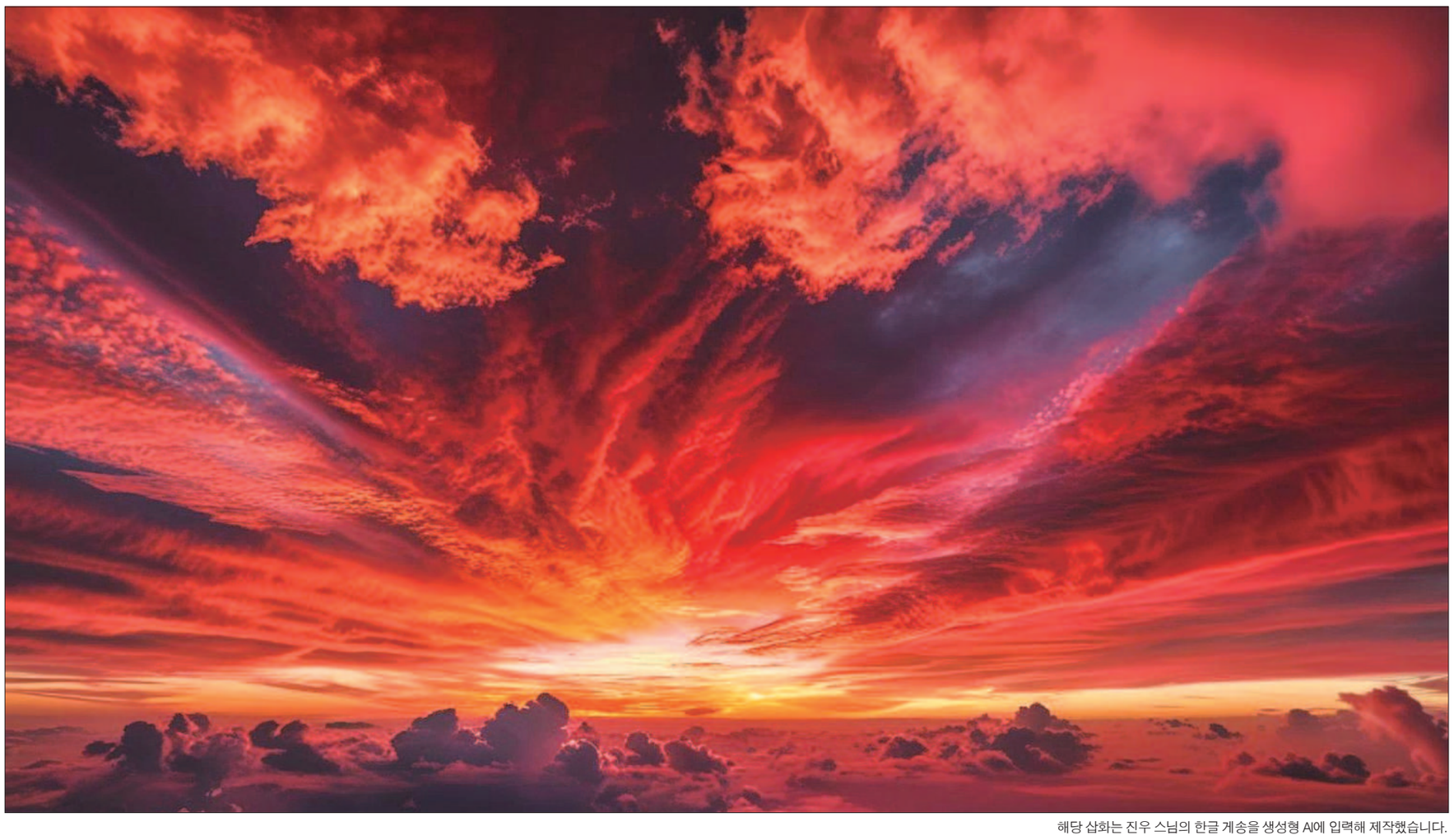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⑱ 자성으로 돌아가라



▶한줄 요약
쉘패스 명상은 자성(自性)의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쉘패스 명상은 마음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하늘처럼 넓고 빛처럼 투명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

**[오늘의 명상]**
**하늘은 스스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고**
**빛은 스스로 빛을 막지 못하며**
**물은 스스로 비에 젖지 않듯이**
**마음(자성·自性)은 마음을 어찌 오염시킬 것인가.**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때로 너무나 단순하여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늘, 빛, 물처럼 본래의 모습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스스로를 가리거나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그 본래의 성품(자성, 自性)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무엇으로도 더러워지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늘, 빛, 물로 비유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은 넓고 비어 있습니다. 빛은 비추되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물은 스스로 젖지 않는 속성을 가집니다. 이는 인간관계와 세상사에서의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상대와 끊임없이 부딪히며 관계를 맺지만, 상대와 나를 분리하지 않고, 동화(同化)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단순히 나와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상대를 나의 업(業)과 인과(因果)가 만들어 낸 아바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상대는 곧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상대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어찌 오염시킬 수 있을까요?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합니다. 무명(無明)의 연기(緣起) 이전의 마음, 즉 자성(自性)으로 돌아간다면 마음은 어떤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비에 젖지 않는 것처럼, 본래의 마음은 아무런 오염 없이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삶의 모든 모습은 나의 업과 인과가 만들어낸 현현(顯現)입니다. 이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밖의 대상을 피하거나 탓하기보다, 내 안의 업식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늘처럼 넓고 비어 있으며, 빛처럼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고,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젖지 않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 봅시다. 이러한 동화의 마음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쉘패스 명상은 이러한 자성(自性)의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쉘패스 명상은 마음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에 동화되되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하늘처럼 넓고 빛처럼 투명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자성을 바라보며,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삶의 재미를 느껴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 빛처럼 본래 모습은 완전해**
**자성으로 돌아가면 오염되지 않아**
**내 안의 업식 돌아보는 태도 필요**
**자성 바라보며 세상과 조화 느끼길**

**[오늘의 명상]**
**뭉실 구름 꼬여도 바람 살랑 풀어주고**
**흐르는 물 흩어져도 구름 비가 보태주네.**
**가는 세월 좇지 않아도 해와 달이 끌어주고**
**근심 걱정 속 태워도 기억 잊는 재주 있네.**

때가 되면 구름은 모이고, 때가 되면 흩어집니다.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고, 흩어지는 것은 다시 모이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생기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반복입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생기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머무르는 때를 즐기지 못하며,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사라짐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흩어진 구름이 다시 모이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일은 인과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니, 흩어지고 사라짐에 애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때를 거스르려는 조급한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바라볼 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알지 못한 채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급한 마음도 아침이 되어야 해가 뜨고, 아무리 아쉬워도 저녁이 되어야 해가 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흐름과 함께하는 본능입니다. 괴로움도 결국 구름처럼 흩어지며,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푸른 하늘이 나타나듯, 모든 일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생로병사가 윤회하면 윤회하는 대로 괜찮고, 이를 타파하여 깨치면 그 또한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들 좋고, 저런들 괜찮습니다. 문제는 오직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자연의 흐름 속에 맡기고, 무리하지 않는 태도로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쉘패스 명상은 이러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을 안내합니다. 쉘패스 명상은 흩어지고 모이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닫고, 인연의 과정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쉘패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지혜로운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부처님이 탄생하는 순간, 腹藏
그 비밀의 문이 열린다




부처님을 예경의 대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
불상은 어떻게 신성한 존재가 되는가?

복장 의식과 점안 의식
그 신비로운 절차의 모든 것을 밝히다.
단순한 미술품이 부처님이 되기까지
타임캡슐처럼 봉안된 불복장 속
당대 문명의 결정체를 만나다.

佛

불복장의 비밀
불교의식 너머 상징의 세계까지
경원 | 400쪽 | 35,000원

현재 금산 극락사 회주, 공주 동학사 주지, BTN 불교티비 자문위원, 한국불복장연구소 소장으로 수행과 전법에 힘쓰고 있다. 수덕사 견성암에서 출가,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견성암·대성암·약수암 등 22안거를 성만하였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대 초반부터 청봉당 혜묵 스님 하에서 불복장 전반을 수학하였다.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화두 명상의 길




간화선의 핵심을 질문과 화답으로 풀어낸 실천 지침서
그 깨달음은 문답 속에서 시작된다.

선禪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곧 길입니다.
당신은 문답을 따라가며
어느 순간 '아!' 하는 깨달음과 함께,
본래 자기 안에 있던 '길'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길입니다
친절한 화두 명상 지침서
달마 김준영 | 312쪽 | 18,500원

간화선을 기반으로 티벳의 족첸과 포와, 마하시, 술륜, 쉐우민 전통의 위빠사나를 섭렵하였으며 현재, 필요에 따라 간화선, 위빠사나, 티벳명상 등을 융합해서 수행을 안내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화두 외의 방편까지 폭넓게 쓰시는 봉화 축서사 조실 금곡 무여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축서사 토요정진회 참선 법회 초심자반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진원 K Classic 콘텐츠연구소장

# 한국 인문고전의 '불교 자비' 세계에 알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백성을 위한 글자, 훈민정음으로 처음 새겨진 불교 경전은 〈석보상절〉이다.

정진원 교수(K Classic 콘텐츠연구소장 · 사진)는 이 책으로 불교에 입문해 문자 해독에서 마음 해석으로, 학문에서 수행으로 나아갔다.

국어학자에서 불교 연구자로, 다시 세계에 한국 인문고전을 전파하는 교육자로 살아온 그는 지금도 질문한다.

"문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2025년 봄, 긴 해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그를 양산 통도사 인근 찻집에서 만났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원효 대사의 실천 불교에 담긴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그의 여정은, 한국 인문고전을 '살아 있는 콘텐츠'로 다시 써내려가는 일이다.



### 언어를 향한 호기심, 불교로 이어지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정진원 교수가 처음 품은 꿈은 언어학자였다. 그 시작은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어린 그에게 큰 궁금증을 남겼다.

"사람들의 말은 왜 다를까?" "왜 말이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언어는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세상을 나누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말과 글에 호기심이 피어올라, 초등학생 때는 혼자서 영어 단어장을 만들고 중학교 시절에는 라틴어와 일본어에까지 관심이 뻗어 나갔다. 언어는 그에게 하나의 세계였고, 말은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였다.

정 교수의 열정은 대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원문으로 공부하면서 구체적인 길로 이어졌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단순한 표기 수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철학이자 정책, 신념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러던 중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만났다.

"불교국가 고려에서 유교국가 조선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오랜 불교 정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쉽고 빠르게 옮길 수 있는 방편이 훈민정음이었고, 세조도 〈월인석보〉 서문에서 '대장경 전체를 섭렵해 핵심만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신이 〈석보상절〉의 제목에도 담겨 있습니다. 석가모니 일대기를 '자세히 할 상(詳)'과 '생략할 절(節)'로 풀어낸 책이거든요."

### 한글로 전한 자비, 사람을 살리는 문자

국어학 전공자로서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을 연구하며 박사논문을 썼지만 정작 불교에는 문외한이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봉선사 불경서당에서 봉선사 조실이자 대강백이었던 월운 스님에게 10여 년간 수학했고,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원에서도 공부했다. 이어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삼국유사〉를 새롭게 만났고,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개발연구'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박사논문을 완성하며 불교와 인문고전을 잇는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됐다.

정진원 교수는 〈석보상절〉이 단순한 불교 경전 해설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자비의 발현이라고 말한다.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 불경을 '처음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든 시도이자 문자로 베푼 구제라는 점에서다.

"훈민정음 창제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는 큰 방편이며,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석보상절〉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애별리고를 석가모니의 인생을 통해 절절히 교감하고 위로해 주는 책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로 언어에 호기심**
**"언어는 세상 이해하는 열쇠 역할**
**〈석보상절〉 만나 불교 본격 공부**
**불교와 인문고전 잇는 연구자의 길**
**고전, 살아있는 콘텐츠로 전환 매진**

특히 그는 〈석보상절〉이 불교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지점이었다고 의미를 짚었다. 조선 초 유교 중심 국가 체제 속에서 신미 대사를 중심으로 한 11인의 스님과 학자들이 협력해 만든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의 언어 정치와 원효의 실천 불교가 만나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세종은 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할 권리를 주었고, 원효는 민초들에게 처음으로 부처와 아미타불을 가르쳤다. 교수는 이 두 인물이 '누구나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부처'라는 같은 마음을 공유했다고 본다. 문자로 전해진 여락(與樂)과 몸으로 건넨 발고(拔苦), 곧 자비(慈悲)다. 〈석보상절〉은 그 정신이 나란히 새겨진 인문고전이자 지금도 유효한 한국 정신의 원형이다.



터키 카이세리 큘테페 힛타이트 유적지에서 발굴단장과 함께한 터키 aTV 인터뷰 모습.



2024년 터키어 한자 교재 출간을 기념해 학생들과 촬영한 기념 사진.



2023년 열린 제11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기념촬영.

### 고전을 콘텐츠로…세계로 확장되는 실천

정 교수는 2000년 튀르키예 정부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의 한국학과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한국어 계통론과 불교 문헌 연구를 연결 짓는 희소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최초의 한국학과 설립과 운영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2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학 도서관 설치, 강의 과정 설계, 현지 학생 양성에 힘씀으로써 한국학 전공이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0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엘테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정교수(Prof. Dr.)로 초빙되어 훈민정음과 〈삼국유사〉, 〈월인석보〉 등을 직접 강의했다. 이후 2021년부터 다시 튀르키예에서 인문고전 중심의 한국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유라시아 각지에서 한국학 특강을 이어왔으며, 국제학술회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유럽한국어교육자협의회(EAKLE), 중동유럽한국학회(CEESOK) 등에서 활동하며 고전 기반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인문고전을 살아 있는 콘텐츠로 전환하는 '실천'이었다. 그는 〈삼국유사〉를 고려 최고의 텍스트, 〈월인석보〉를 조선 최고의 텍스트로 꼽으며 두 작품 모두를 박사논문 주제로 삼았다.

"K-Pop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늘 짧게 답한다.

"K Classic(한국 인문고전) 콘텐츠입니다."

정 교수의 고전 교육은 강의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삶의 맥락 안에서 고전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SNS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제자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한국 인문고전에 담긴 정서와 불교의 가르침을 스며들게 한다. 귀국 후에는 외국인과 청년을 위한 '고전 읽기 공동체'를 만들어, 한국 고전과 불경을 함께 읽고 사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말 하고 싶은 건 함께 앉아 고전을 읽고 그것을 현재 삶에 녹이는 일이에요. 그걸 젊은 세대에게 대중화하고 외국인에게 세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가 내디딜 다음 걸음은 겨자씨로 시작하는 수미산일지 모른다. 대학 강의실이든, SNS의 짧은 문장이든, 혹은 사찰이나 대중 강의실 어디서든 그는 여전히 훈민정음과 불경, 그리고 원효라는 세 가지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정진원 교수는**…2000년부터 터키 · 헝가리 등에서 한국 인문고전의 대중화 · 세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0년 헝가리 엘테대학교에서 〈삼국유사〉와 훈민정음 강의를, 2012년 독일 본대학 및 세종학당에서 경주 유적 답사와 운문사 템플스테이를 주관했다. 이후 2013년 독일, 2014년 오스트리아, 2015년 슬로베니아, 2016년 덴마크, 2017년 라트비아, 2018년 핀란드, 2019년 리투아니아 등지에서 한국 인문고전의 세계화를 실천해 왔다. 2021~2024년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예스국립대 한국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021년부터 봉선사 불교대학에서 〈월인석보〉를 강의했고, 최근에는 서울 강남문화원에서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을 주제로 여행인문학 강의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영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 여행기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등이 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좋은 조건에 베테랑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1차 | 10월23일 출발~11월02일 도착(11일 일정)
2차 | 11월28일 출발~12월07일 도착(10일 일정)
3차 | 12월05일 출발~12월14일 도착(10일 일정)
▶ 일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1차 | 6월07일~6월22일(16일간)
2차 | 9월13일~9월28일(16일간)
▶ 일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 동참금 : 570만원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인도 라다크 헤미스 축제 8일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8일(8일간)
▶ 동참금 : 36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9월11일~9월20일
▶ 동참금 : 349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13일~20일(6박8일)
■ 일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❺ 행사(幸思) 스님



▶한줄 요약
행사 스님은 1617년에 수화승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계룡산 갑사 소조석가여래칠존상을 제작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조각승이다.

# 2300 시주자 참여 '갑사 三佛' 조성한 수화승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행사 스님이 수화승으로 참여해 조성했다.

**임란 파괴 송광사 등 불사 참여**
**영서, 호남 등서 활동 기록 남아**
**갑사 소조삼불좌상 조성 주도해**
**17세기 대표 조각승 무염의 스승**

임진·정유재란(1592~1598)이 끝난 1600년대 불상 제작과 중수를 주도한 조각승으로 현진(玄眞) 스님, 석준(釋俊·釋峻) 스님, 광원(廣圓) 스님, 원오(元悟·圓悟) 스님이 밝혀졌다. 이 스님들은 종교적인 믿음과 불상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불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599년에 석준 스님과 원오 스님은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등을 중수·개금했다. 이 문수동자상은 1466년에 세조의 딸 의숙공주와 사위 정현조가 아버지인 세조의 무병장수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만든 불상으로, 종전 후 왕실 원찰(願刹)의 중창이나 중수가 먼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행사 스님은 1604년 11월에 현진·석준·원오·각민(覺敏) 스님이 초춘암(草春庵)에 목조아미타여래좌상(현 전주 불정사 봉안)을 만들 때 불전(佛前)에 공양할 음식을 만드는 소임인 별좌(別座)로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1605년 10월부터 1606년 3월까지 공주 계룡산 청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현재 공주 동학사 봉안)과 극락전 아미타여래좌상(소재 미상)을 조성했다. 당시 증명(證明)은 석준 스님이고, 수화승(上畵員)은 각민 스님이며, 각심(覺心)·행사·휴일(休一)·덕잠(幸思) 스님이 제작에 참여했다. 네 구의 불상을 5명의 조각승이 대략 5개월에 걸쳐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행사 스님은 1610년 2월에 석준 스님이 주도한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의 개금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하고 1614년 4월부터 9월까지 부화승으로 각민 스님이 주도한 순천 송광사 비로자나불삼존상(한국전쟁 중 소실)을 청허(淸虛)·보옥(寶玉)·희순(熙淳)·심정(心淨)·응매(應梅) 스님과 조성했다.

3년 후인 1617년 10월에 수화승으로 공주 계룡산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과 사보살상을 덕현(德玄)·천담(天潭)·희순(熙淳)·경륜(敬倫)·심정(心淨)·응매(應梅) 스님과 제작했다. 또한 행사 스님은 1635년 4월에 정읍 용장사에서 간행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에 목판 시주자로 참여하고,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48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나한상(1655년) 제작에 시주자로 참여했다.

이와 같은 작품 활동으로 행사 스님은 1580년 전후에 태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친 후, 1604년에 수화승 현진 스님이 불상을 만들 때 인연이 되어 별좌 소임을 맡고, 1606년에 각민이 공주 청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할 때 5명 가운데 3번째 언급되어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614년에 부화승으로 각민 스님을 도와 송광사 불상을 제작하고, 1617년에 수화승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계룡산 갑사 소조석가여래칠존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조각승임을 알 수 있다. 행사 스님은 1620~1640년대까지 불상 제작을 주도한 문헌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1650년대 중반까지 여수 흥국사 불상 제작에 시주자로 참여했다.

조각승 행사 스님의 계보는 석준(1599~1610, 이하 활동기간)·원오(1599~1611)·각민(1605~1614)·각심(1606~1614)→행사(1604~1655)→심정(1614~1624)·응매(1614~1650)·무염(無染, 1633~1656)→해심(海心, 1633~1654)으로 이어졌다.

행사 스님이 주도해서 만든 불상이 봉안된 갑사는 공주 계룡산 서남부 연천봉 아래에 위치한 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의 말사이다. 1659년에 여주목사 이지천(李志賤)이 지은 '공주갑사사적비(公州岬寺事蹟碑)'에 의하면 갑사는 정유재란 기간에 왜구의 침탈로 소실된 후 1604년에 인호(印浩)·경순(敬淳)·성안(性安) 스님 등이 대웅전과 진해당을 중건했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내부에 보물로 지정된 석가·아미타·약사여래와 사이사이에 보살상 4구를 배치했다.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은 좌우 협시불보다 약간 크고, 높이 267㎝로 결가부좌한 대형 불상이다.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왼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상태에 엄지와 중지를 구부린 전형적인 조선후기 통인(通印)을 취하고 있다. 불상은 상반신을 세우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 아래를 내려 보고 있다.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표현되고,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中央髻珠)와 정수리 부위에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장식돼 있다.

역사다리꼴의 얼굴에 가늘게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17세기 초반 불상의 얼굴에서 풍기는 특징을 보여준다. 갸름한 목에 삼도(三道)가 완만한 반원을 그리고, 얼굴에 비해 어깨가 넓은 편이지만, 신체 비율은 인체와 비슷하여 균형 잡힌 모습이다.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를 덮은 옷자락이 목 밑에서 비스듬히 걸친 후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이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복부에서 하반신으로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중앙에 수직으로 한 가닥의 주름이 길게 늘어져 있고, 끝부분이 안쪽으로 둥글게 말려 있다. 왼쪽 무릎 위에는 넓은 잎사귀 형태의 소매자락이 늘어져 있다. 불상의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한 가닥의 옷주름이 길게 늘어지다가 끝에서 앞뒤로 펼쳐져 있다.

불상 뒷면은 목둘레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옷자락이 대좌 위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묶여있으나 일부 자락이 접혀 있다. 이와 같은 대의처리는 조각승 각민이 제작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06년)이나 순천 송광사 비로자나불삼존상(1614년, 한국전쟁 중 소실)과 유사하다.

협시불로 봉안된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는 얼굴의 생김새와 이목구비에서 본존과 인상이 동일하지만, 한쪽 손을 어깨까지 치켜들고 반대쪽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통인을 취하고 있고, 착의법은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걸쳐 복부에서 대의자락과 접힌 부분이 표현된 점과 하반신에 늘어진 대의자락이 본존과 다르다.

세 구의 여래상 사이사이에 배치된 네 구의 보살입상은 문수와 보현보살, 관음과 대세지보살로 추정하고 있다. 목조보살입상은 화려하게 화염문(火焰文)과 화문(花文)이 장식된 커다란 보관을 쓰고,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다. 보살상의 인상과 신체 비율은 본존과 거의 유사하지만, 화려한 장신구의 표현이나 들고 있는 지물(연화가지와 여의)이 다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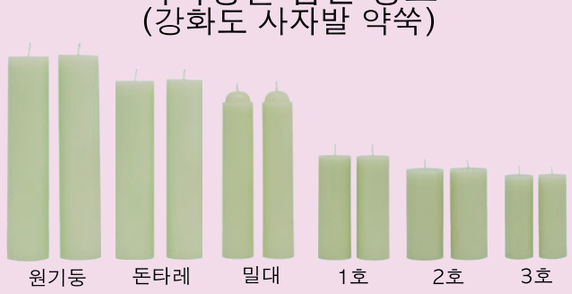
석가여래삼불좌상과 사보살입상으로 구성된 칠존 형식의 불상은 조선 후기에 좀처럼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성으로, 2015년 관음보살상 보존 수리 과정에서 조성발원문, 후령통(喉鈴筒), 오보병(五寶甁),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다라니(陀羅尼)를 비롯해 총 7건 263점의 복장물이 수습됐다. 이 불상 조성에 참여한 시주자가 2300여 명이라는 사실은 조선 후기 가장 많은 시주자가 참여한 불사(佛事)이고, 당시 불교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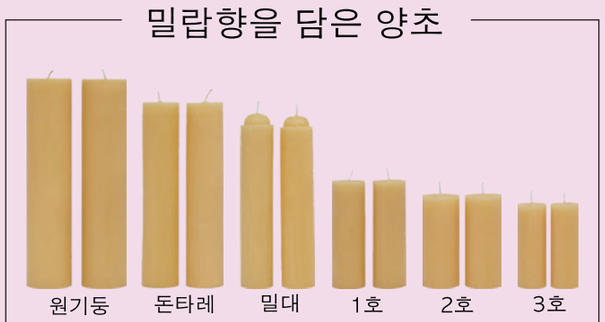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 “靜中 燃燈, 자비 등불로 세상을 밝히다”

## 도심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정중연등종의 길

### 불교정중연등종 법인 출범, 나눔의길 박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기 2569년 4월 비영리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이 창종을 선언하며 새롭게 첫걸음을 내딛었다.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 도심 스님이 법인 출범 이후 첫 공식 사회공헌 행보로 장애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불교정중연등종(이사장 도심 스님, 안성 연등사 주지)은 4월 23일, 제45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경기도 안성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 안성시장애인단체연합 기념행사에서 장학금과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심 스님은 지역의 장애 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3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직접 전달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종단 창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법인은 법당 안에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거리와 이웃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불교를 지향합니다.”

이날 도심 스님은 단호하면서도 온화한 어조로 법인 설립 철학을 설명했다. 불교정중연등종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도심 스님이 추대되었다. 법인 이사로는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등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불교정중연등종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1인가구’에 대한 후원 및 생필품 지원, 학업장려, 신생아 출산 장려 및 정신계발운동 등을 목적으로 한다. 2월 3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데 이어 의례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실천의 구체적 모범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중(靜中)은 수행의 깊이를, 연등(燃燈)은 실천의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고요히 깨어있되,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법인의 이름이자 길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도심 스님의 삶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수행자이자 복지운동가로 30여 년을 살아온 스님은 지역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등에 천착,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도심 스님이 4월 23일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수행 · 실천 일치’ 의미 ‘정중연등’**

**2월 법인 설립 후 4월 나눔행보**

**北이탈주민 · 저소득가정 돕기**

**풍수동문 사회공헌 지속 이끌어**

**도심 스님의 ‘나눔의 삶’ 투여돼**

**각계 공로상 등 수상 바탕으로**

**지역결연 등 활발한 활동 포부**

도심 스님의 선행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10월 도심 스님과 불자님들은 죽산면에 위치한 파라밀요양원에서 개최된 ‘효사랑 축제’에 참석해 국제연꽃마을 앞으로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당시 도심 스님은 평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한국군증오비가 세워져있고 베트남 오지의 열악한 교육환경 소식을 듣고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故각현 스님의 뜻에 동참하여 후원금을 기탁했다.

도심 스님의 선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안성시불교사암연합회에서 활동하며 당시 사암연합회 회장인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들과 함께 하나원(북한이탈주민생활관) 퇴소자들을 위한 이불보시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또 도심 스님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16기와 17기를 역임할 당시 죽산면에 있는 탈북 청소년 정규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이불보시와 장학금 기부 등 큰사랑을 실천해 당시 황은성 안성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민주평통 위원장으로부터 공로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도심 스님은 동국대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생활풍수 총동문회(이하 동풍 동문회)를 2019년 4월 조직하고 초대동문회장으로 취임, 지금까지 4대에 걸쳐 총동문회를 이끌며 풍수지리 학문 진작과 함께 나눔 행보를 펼치고 있다.

도심 스님은 2019년 5월 동문회장 취임 후 동국대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으며, 2020년 3월부터 전국사찰 간산과 토론, 현장교수 선임 등으로 동문회 활동을 이끌었다.

특히 스님의 리더십은 학문 공동체 속에서도 이어졌다. 세미나와 각종 활동 마다 사회공헌을 함께 이어온 것이 특징이다. 2023년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 당시에는 동국대 2000만원, 방송통신대 1000만원 등 장학금을 전달하며 후학 양성에 마음을 쏟았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학술을 넘어, 불교적 가치와 실천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결과 올해 3월 30일 도심 스님은 동풍 동문회 제4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연임되었으며, 이후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행의 결과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사회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결국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데로 이어져야 합니다.”

스님은 올해 4월 9일에는 동풍 동문회원들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하며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나눔을 진행했고, 4월 17일에는 생필품과 후원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동풍 제4대 동문회장으로 연임 후 첫 활동이다.

여러 활동 결과 도심 스님은 2023년 ‘동국인의 밤’에서 동국대 총동문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은데 이어 2024년 12월에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서 문화부문 대상과 국회 교육상임위원장 표창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장도 함께 수상하기도 했다.

불교정중연등종은 창종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등운동’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사찰이 지속적으로 연계해나간다는 의미다. 각 사찰이 지역 소외계층과 실질적인 후원 및 심리상담, 긴급 돌봄 활동 등을 수행하겠다는 실천 선언이다.

불교정중연등종의 첫 행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묵직하다. ‘자비의 등불’을 삶 속에 밝히겠다는 결의가 담겼기 때문이다.

도심 스님은 “법인 설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수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가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다.

불교정중연등종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그 길을 걷고 있다. 연등 하나 하나에 담긴 자비의 염원이 거리 곳곳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도심 스님은 여전히 ‘고요한 중심에서 타인을 위한 불을 밝히는 연등 수행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4월 17일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물품 전달.




4월 23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에서 불우한 지역민에게 장학금과 생활기금을 전달했다.



2024년 12월 국회표창장을 수여받은 도심 스님.



2024년 4월 열린 제2회 동풍 학술세미나 모습.




2019년 동국대에 동풍 초대회장으로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불자생활

1530호 | 16 | 전면광고

##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시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요사60평 • 매가 : 35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매도, 매수,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
- 전월세 가능 : 보 4000 / 월세 40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 문의, 가격 절충

010-3102-5102

##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3평(황토 찜질방 1동)
- 특징 :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 포교원 건물(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학성동
- 면적 : 82평 실평(3층 건물)
- 대로변 주차 가능
- 매가 : 4억8천만원
- 통화 안 될때는 문자·문의

010-2708-697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230평
- 가액 : 2억3000만원(가격절충)
- 종교부지 / 주차 5대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7천만원

010-5804-5100

##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6898-9114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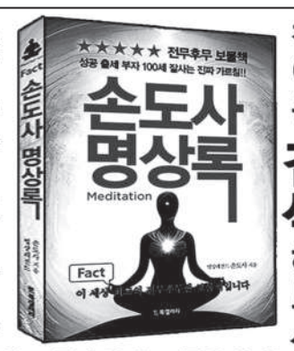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 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 사 찰 안 내

1. 대구시 중심. 매매 또는 임대 전통형식대웅전40평(웅장함) 전통기와 종무원, 문학관, 천왕문 뒤 대숲, 실개천, 등산로 입구 주거지역 천5백평, 분할가능 인연에 따라 가격은 결정함
2. 합천 : 법당, 산신각 등 2억
3. 팔공산국립공원(대구시 동구) ○○종단본부(종교용지 5백평) 법당, 종무원 등등 풍광최고 12억원 DC 4억 8억 매매
4. 의성 : 9천만원 법당, 요사채
5. 영천 : 4천만원 법당, 요사채
6. 봉화 : 4천5백만 법당, 요사채

053-745-9999, 010-2512-7777

##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 사찰홍보에 도움을 드립니다

YouTube, 음반, 출판, 행장 등 제작, 관리, 감수 등
dalrma2025naver.com
다르마기획

010-8048-2145

## 장 생 탕 제 원

암, 당뇨, 전립선, 조루, 발기부전
한밤중에 자다가 뒷다리에 쥐가 난다(혈액순환을 잘되게 하세요)
농협 : 352-0632-0488-93, 하나은행 : 577-910361-13007
예금주 : 김 정 태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33길 18
식이요법 · 자연요법 · 면역요법

010-2046-026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 금산사 신도회

| | |
|---|---|
| 회 장 | 송 담 한광수 |
| 고 문 | 남궁선 이근재 김영섭 임규래 |
| 수석부회장 | 안준아 한지우 복해원 고귀월 |
| 부 회 장 | 송재면 강대후 나유인 장석희 엄현숙 문민선 박춘열 안수빈 안귀옥 박승철 하상희 양병용 |
| 감 사 | 박병남 안원후 |

## 탈 종 공 고

- 주 지 : 청당 (속명 : 김진석)
- 승 번 : 2563-0003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64번지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대한불교국제중도선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출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서정원의
## 불교미학산책

⑨ 혜화별관–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 진주 잡는 어부인가, 진주 품은 조개인가

동국대학교 박물관을 나와 학교의 정상, 남산의 중턱인 팔정도 광장에 이르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박물관과 혜화관 사이의 계단을 직통으로 올라가는 길, 혜화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층에 내려 구름다리를 건너는 길, 마지막으로 혜화관을 끼고 한 바퀴 빙 돌아가면 100주년 기념비와 정각원이 맞이해주는 길이다. 외로운 산책자에게는 반갑게 맞이할 친구가 있는 길이 좋지 않을까? 혜화관을 빙 돌아 가보도록 하자.

그런데 계속 언급하는 혜화관의 혜화라는 단어에 눈길이 간다. 우리는 꽤 오래 전에 혜화문을 넘어오기도 했는데, 도대체 다른 대학이 위치한 혜화동이라는 이름이 왜 계속 동국대학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그건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의 행지(行持)가 동국대학교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혜화전문학교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비교적 짧게 사용된 이름이지만 광복 직전, 긴 밤 중에서도 가장 어둡다는 동틀 녘 직전에 사용된 이름이어서 그런지 가장 많이 회자되는 동국대학교의 개명 전 이름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의 조지훈이 이 혜화전문학교를 다녔다.

이렇듯 동국대학교는 수많은 과거가 쌓여 올라간 학교이다. 우리가 밟는 산책로는 수많은 이야기의 얼개로 짜이고 얽혀 만들어진 길이다. 다만 이 길을 만든 무수한 이야기 중 살아남는 이야기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 동국대학교의 역사가 혜화전문학교 하나로서만 말해질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살아남는 이야기만이 우리에게 남겨질 뿐, 그 곁으로 사라져 가는 이야기는 주목되기 힘들다. 이 수많은 얼개의 이야기 중 무엇이 살아남고, 무엇이 살아남지 못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해석학이다. 나는 해석학을 볼 때마다 독일 제3제국 철도청의 선로변경원이 생각난다. 어떤 기차가 아우슈비츠로 가는 선로를 타고, 어떤 기차가 번영의 베를린에 가게 될까?

해석학에 대한 불평불만을 다하고 나니 혜화관이 끝나고 정각원이 나타나게 될 찰나에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건물이 있다. 혜화별관이다. 필자 나름 생각해보면 동국대학교를 불교적으로 풀어나간 사람이 한둘은 아니겠지만, 혜화별관에 주목한 사람은 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만큼 산책자로서 여유로워서이지만 산책자의 눈길이 멈춘 것은 혜화별관에 위치한 영상대학원이라는 표지판 때문이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은 서울 동국대학교의 수많은 특수대학원 중, 유일하게 박사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이다. 동국대학교 학부 연극영화학과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과 어울리게 그 연장선의 대학원 또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안다. 그런데 산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는 영상(映像)이다. 비칠 영(映)에 형상 상(像)이라니. 이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이 두 가지는 불교철학의 핵심 테마이다.



혜화별관에는 '영상대학원'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미학에서의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
**현색과 형색의 조합은 미의 객관주의**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르면 주관주의**

어느 날 카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라는 일본학자의 〈인도불교철학〉이라는 책을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일이 있었다. 번역자인 권오민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해 '이론체계로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한다'고 평가한 것을 보고 무언가에 홀린 듯 책을 빌리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불교공부에 체계를 잡지 못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지 길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 한 줄의 평에 길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빌려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책을 펼치고서 들이닥친 암담함은 지금 와서 생각해도 내가 불교공부를 계속할 용기가 어디서 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 책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인도불교철학 전체의 얼개를 잡고 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이 책은 본다고 하는 것은 외계의 실재하는 대상물일까, 한 찰나 마음에 남긴 흔적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아니면 이조차 사실 생겨난 적도 없는 공한 일일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나오는 전문술어들의 어색함은 둘째 치고, 이 정도 사고력이 없으면 내 스스로 불교적 구도를 이루어 가는 건 끝이라는 생각을 하며 책을 고이 접어서 책장 한쪽에 묻어뒀다. 그래도 책을 나빌레라 날려 보내지는 않아서일까? 불교학의 외도로 가져온 미학에서 다시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미(美)라는 심상이 대상물에 존재하는지, 자신의 마음에 존재하는지는 지난 호에서 말했듯이 미학의 중요주제로 미의 주관주의, 객관주의 논쟁이란 이름 아래 치열하게 논의되어 왔다. 미라는 것이 대상의 형태 자체에 귀속된다라고 할 때, 미는 꼭 심리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외형의 상태 그대로를 말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형태를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에 미가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미가 심소(心所)인지, 현색(顯色)과 형색(形色)인지의 문제이다. 형색은 길고, 짧고, 각지고, 둥글고의 외형적 모습인 장단방원을 말한다. 현색은 푸르고, 누르고, 빨갛고, 하얀 외형적 색깔인 청황적백을 말한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상물이 마음 밖 외계에 실재한다면, 그것은 그 실물의 장단방원·청황적백이라는 현색과 형색의 값이 실재하는 것이고, 그것의 조합에 따라 미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며, 이런 사고방식은 곧 미의 객관주의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꽃도 장단방원청·청황적백을 가지고 있고, 쓰레기도 장단방원·청황적백을 갖고 있지만 그 조합에 따라 꽃은 아름답고, 쓰레기는 아름답지 않다. 보통의 사람은 꽃은 아름답고 쓰레기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단방원·청황적백의 객관적 조합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에 쓰레기에도 왠지모를 쓸쓸함, 자신의 쓸모를 다한 홀가분함 등의 미를 느낄 수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기대하고 있는 미적 작용이다. 이런걸 미의 주관주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둘러 첨언하자면 인도에서 지난한 세월 고민해 온 아비달마적인 논리와 그 연습에 대해 경탄만 보낼 뿐, 사실 그 이해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산책자가 주제넘게 비바사(毘婆沙, 논사) 흉내를 내본 것이다. 그럼에도 내 안에 결정화되는 이 미라는 진주의 출처가 외부인지 내부인지는 산책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산책자는 진주조개를 잡는 어부인가, 사실 진주를 품은 조개일 따름인가.

〈동국대 박사〉

# 대지 의인화한 인도 신화 '地天'
# 불교 흡수돼 '지장보살'로 나타나



법공 스님의
## 〈지장십륜경〉 강의

⑱ 지장사상의 유래와 역사(1)

'지장'이라는 용어를 헤아려 보면 '지장'은 종교상의 단어이기 이전에 사상 내지는 문화적 개념으로 먼저 쓰여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즉, 그 사상이 태어난 환경과 문화 등을 시작으로 하여, 후에는 종교상의 단어로 쓰여 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지장'하면 우선 그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하며, 아무래도 사상적인 면에서 논하려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이것은 마치 '석가모니'란 한 인간을 사상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긍정할 때, 보다 더 견고한 믿음 즉 신앙심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이 '지장' 역시 실존인물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상의 연원을 생각해보면, 더욱 굳건한 이해와 올바른 신앙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장십륜경〉 이야기의 모태가 되는 '지장사상의 유래' 내지 '지장신앙사의 개요'를 먼저 말씀 드리고 나서, 그것이 전래된 중국의 지장신앙 및 전법과 그러한 영향이 다시 한국 민족에게 끼친 여러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인도에서 그 시발점을 찾아볼 수 있듯, '지장' 또한 인도인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의 신(神), 또는 지모신(地母神)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열반 전후 이야기인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집이나 거리를 건설할 때 토지신의 조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인도의 신들은 엄연히 존재하며, 인간과 자연은 신들과 분리되지 않고 공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야크샤'와 '야크쉬니'는 지모신(地母神)으로서 집이나 토지의 수호신 성격을 가지게 되며 불교와 관련성을 띠게 됩니다. 깨달음과 윤리성을 본래의 뜻으로 삼고 있는 불교는, 이 같은 민간 신앙을 흡수해 생생한 활력을 얻어 민중 사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점차 변모하여 인육을 먹는 성격으로 바뀌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야차(夜叉)라 불리는 '악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지모신 등이 '지장'으로 정형적인 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은 '지옥'의 개념 또한 비슷하여, 후대에 와서는 지옥과 염마왕등의 연관과 함께 '지장'이 염마왕이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지장'사상이나 신앙의 원천은 석가 이전 인도 바라문의 신화 중의 지천(地天), 즉 지신(地神)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신은 인도 아리아 민족이 지니고 있던 신화 중의 최고의 여신으로서 광대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으며, 희랍신화의 지신(地神)과 같이 대지(大地)를 의인화시킨 것 같습니다. 또한 원명(原名)을 '프리티비'라고 칭하며 12천의 하나로 여기며 범천이 상방천공(天空)을 수호하는데 비해서, 지천(地天)은 하방의 대지를 수호해 대지신녀라 칭하며 재산을 축적·질병을 치료하며 원적(怨敵)을 항복시킬 때에 초청하는 여신으로 신앙되나 후에는 남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지를 의인화 시킨 '지장'이 불교에 흡수되어 이상화되며(대승불교화 되어) 하나의 사상체계에 조직화된 것이 바로 〈대승대집지장십륜경(지장십륜경)〉 또는 〈지장보살본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보살은 불교에 의한 하나의 이상신(理想神)이라고 생각되지만 불교에 있어서는 석가에게 귀의한 자로서 아함(阿含) 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대승불교권에 들어와서는 수행을 쌓아 부처가 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처가 되기를 마다하고 이 세상에 남아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원력보살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장보살'은 석가의 입멸 후 56억 7000만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지나 미륵불이 나타나기까지의 무불세계(無佛世界)에 의한 6도(천상, 인간, 아귀, 아수라, 지옥, 축생) 중생을 책임지며, 그 모두를 부처로 만든 연후에 자신이 부처를 이루겠다고 큰 서원을 발휘한 보살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장신앙의 기원은 인도이며 또 불설(佛說)이 아니라고는 해도 그 사상·신앙의 발생은 내용상으로 보아도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 당시의 지장사상의 문화, 유산 등은 전혀 인도에서 볼 수가 없고, 중국으로 들어와서도 겨우 6~7세기경에 현장 삼장이 영미2년(651)에 〈지장십륜경〉 10권을 역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 방(昉)자 한자를 남긴 것을 일본의 삼계교 연구가인 야부키 케이키(矢吹慶輝) 박사가 신라의 신방(神昉)으로 추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미래를 여는 세계적 불교성지 탄생에 함께해 주십시오.**

**크게 제도할 도량 거제도 제석산에 천연 와불이 수호하며 거북이가 알을 낳고 대붕이 내려앉는(대붕안착형) 영험한 명당에 더븜비전센터를 창건합니다.**

세계 건축 명장이 초현대적 감성으로 불교 우주관을 녹여 남섬부주에서 9산 8해를 지나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구현했고,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붓다로드에 자화상의 도예 원불을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흰 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 제석천 위 허공에 뜬 불상, 바다 위에 떠 오른 해수관음보살상, 구품연지, 금강저, 종이로 만든 법당 기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창건불사 하십시오.**

도예원불 동참으로도 창건 공덕주가 됩니다.
삼천 불자들의 소망을 모아 대작 불사를 시작합니다.
자손 대대로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될 위대한 불사에
불자님의 정성과 원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예원불 108만원(100일 기도축원)
해수관음보살 1080만원(1000일 기도축원)
계 좌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더븜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영산대학교 동양상담학과 교수)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⑨ 입하 _ 홍제천 길을 걷다



▶한줄 요약
산과 들에 온갖 나물들이 돋아나고, 잡초와 해충도 많아져 그만큼 할 일도 늘어나는 때. 올해는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시작되는 입하. 연등 불이 환히 떠오르는 날, 여름도 그렇게 시작된다.

# 뭇 생명 존재 드러내는 청량 계절 첫 발 떼다

**사월이라 한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라네/ 비 온 끝에 볕이 나니 일기도 청화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뻐꾹새 자로 울고/보리 이삭 패어 나니 꾀꼬리 소리 난다.**
**– 농가월령가 中 '사월령'**

농가월령가에 그려진 이른 여름의 모습은 더없이 맑고, 싱그럽다. 땅에는 푸른 보리에 알알이 이삭이 맺히고, 하늘에는 고운 새소리 가득한 이 계절을 어느 누가 마다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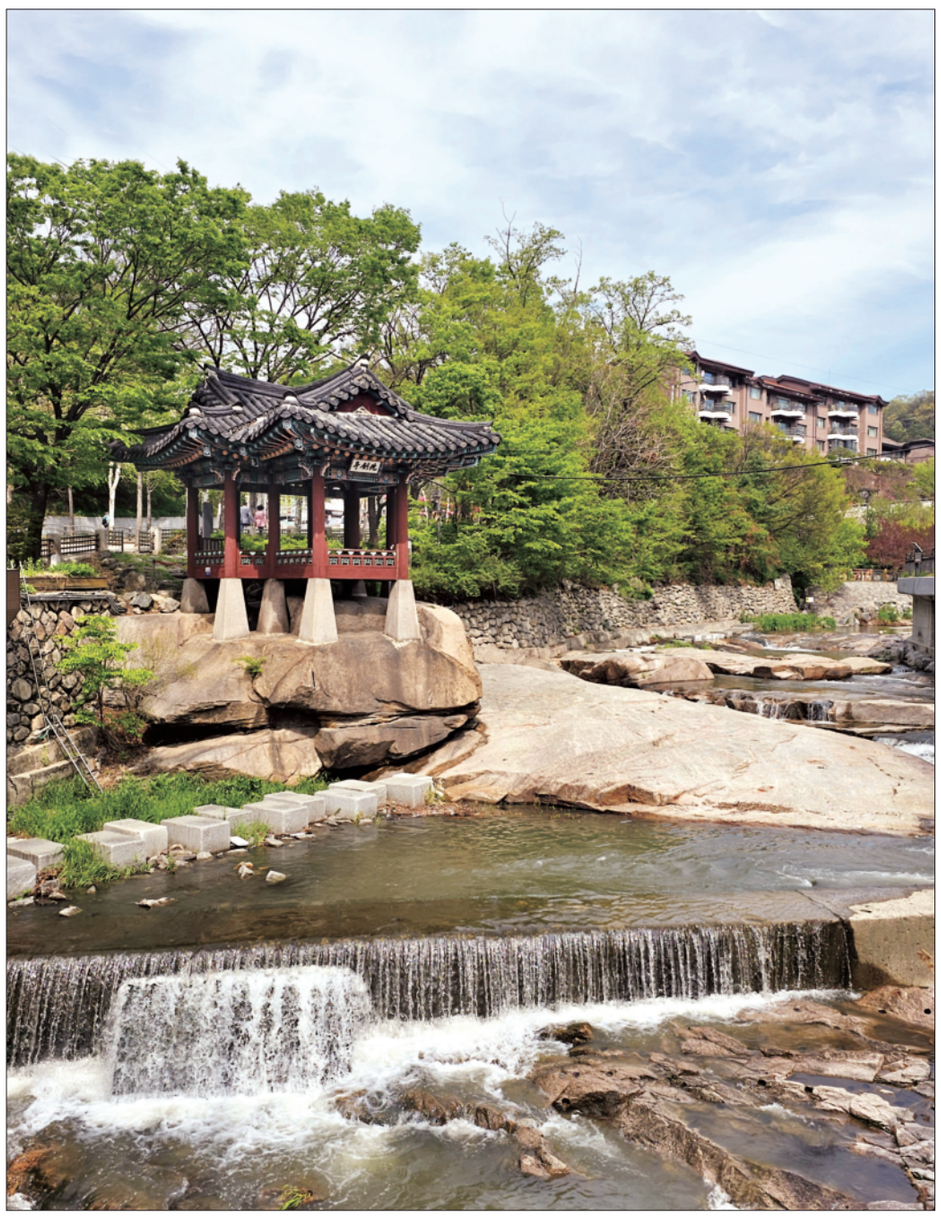
만개했던 봄이 저무는 대신 녹음이 더욱 짙어지는 5월. 바야흐로 여름을 알리는 입하(立夏)의 시작이다.

오월의 입하를 시작으로 칠월의 대서까지, 이제 여름은 힘찬 말처럼 시절을 내달릴 것이다. 하지만 가혹하리만치 뜨겁게 타오르는 한여름과 달리, 봄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절기는 아직 청량한 모습으로 계절의 첫발을 뗀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의 맥량(麥凉), '초여름'이란 뜻을 가진 맹하(孟夏), 그리고 이즈음 회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해 괴하(槐夏)라고 불리기도 하는 입하.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과거 어느 월령가와 기록을 보아도 이 무렵의 풍경은 내내 분주하다.

옛사람들은 입하 15일간을 5일씩 나누어 그 시절의 모습을 전한다. 첫 5일에는 청개구리가 울고, 다음 5일은 지렁이가 땅에서 나오며, 마지막 5일에는 왕과(쥐참외)가 열린다. 그야말로 뭇 생명이 '나 여기 있소' 하며 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산과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돋아나고, 잡초와 해충도 많아져 그만큼 할 일도 늘어나는 때. 또 논에 못자리를 꾸리고, 물을 댈 준비를 하느라 '마을마다 남녀 모두 정신없이 바삐 뛰고, 집에 있을 틈도 없어졌다'(농가십이월속시中 사월)는 시절이다.



겸재 정선의 '세검정도'를 바탕으로 새로 조성한 현재 세검정. 건물과 도로로 옛 운치를 찾기란 쉽지 않지만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물줄기가 바위 위로 넘실댄다.

### 도시의 초여름

산지에서야 자연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상이지만, 도시의 환경과 생태는 그와 달라 절기라는 것은 매번 잊히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조금만 욕심을 낸다면, 서울 한가운데서도 초여름의 정취를 즐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건 바로 옛사람들의 시절 풍경과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 수백 년 전에도 또 그 이전에도 절기란 매양 같은 철에 찾아오는 것이니, 오래전 이 계절의 하루를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침 며칠 전부터 센 바람과 함께 비가 잔뜩 내린 참이었다. 이럴 때 떠오르는 곳이 서울 종로구의 홍제천(弘濟川)이다.

북한산의 문수봉·보현봉·형제봉에서 발원하여 한강까지 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홍제천. 그 물길을 따라 천년고찰 옥천암, 한양 도성을 지키던 홍지문과 탕춘대성, 그리고 저 유명한 누각 세검정이 차례로 이어진다.

오래전부터 도심 속 명승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변덕 심한 계곡은 조금이라도 비 내림이 과하면 길이 잠기고, 또 조금이라도 날이 가물면 바짝 마른 바위만 가득해져 멋을 잃고 만다. 그리하여 적절한 양의(?) 비가 내리는 때라면 망설이지 말고 이곳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230여 년 전. 같은 마음으로 비 내리는 세검정을 향해 내달린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 '다산 정약용'이다.

### 다른 시간, 같은 계절

1791년 5월 어느 날. 맑았던 하늘에 우렁우렁 먹구름이 끼고 천둥소리와 함께 소낙비가 내리려는 찰나, 명례방(지금의 명동)에서 지인들과 만난 정약용은 벌떡 일어나 벗들을 재촉했다.

소나기가 내릴 징조이니 함께 세검정으로 가자고, 만약 가지 않겠다는 이에게는 벌주 열 병을 내리겠다는 엄포와 함께. 이는 '유세검정기(游洗劍亭記)'라는 산문을 통해 그날의 모습을 기록한 정약용 본인의 이야기다.

"세검정의 빼어난 풍광은 오직 소낙비에 폭포를 볼 때뿐이다. 그러나 막 비가 내릴 때는 사람들이 옷을 적셔 가며 말에 안장을 얹고 성문 밖으로 나서기를 내켜 하지 않는다. 비가 개고 나면 산골 물도 수그러들어 버린다. 이 때문에 정자가 저편 푸른 숲 사이에 있는데도 성중의 사대부 중에 능히 이 정자의 빼어난 풍광을 다 맛본 자가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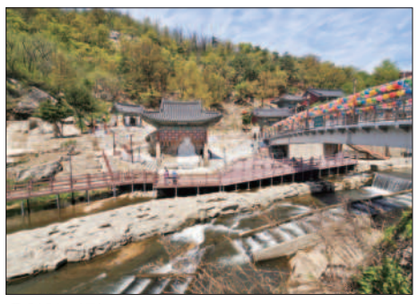
그렇게 마부를 재촉해 만난 세검정은 '수문 좌우 계곡에서 고래 한 쌍이 물을 뿜어내듯 이미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다'고 전한다.

옷이 다 젖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던 조선의 문인들. 몇 순배의 술이 함께 돌고, 어느새 지는 해가 나무에 걸릴 즈음 그날의 정약용과 벗들은 서로를 베고 누워 시를 읊조렸다.

비록 지금의 세검정은 과거 화재로 소실된 것을 겸재 정선의 '세검정도'를 바탕으로 새로이 조성한 것. 또 켜켜이 솟아난 건물과 도로에 싸여 그 시절의 운치를 모두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조선의 낭만 가객들이 감탄하던 그날의 물줄기가 바위 위로 넘실댄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가슴 뛰는 추억이 머무는 곳, 세검정에서 그날의 다산과 마주해 보는 것도 좋을 계절이다.



'보도각백불'로 불리는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옥천암 전경.



홍지문과 오간대수문.

### 모두가 새로워라

세검정에서 상류를 향해 발길을 옮기면, 어느새 홍제천 물길을 조절하는 오간대수문(五間大水門)이 눈에 띈다. 저 멀리 산을 타고 이어진 탕춘대성의 다부진 성벽과 그 시작을 알리는 홍지문의 모습도.

하지만 지금의 홍지문과 오간대수문은 일제강점기에 홍수로 유실되었던 것을 복원한 것이다. 이렇게 저버리고 다시 태어난 것들처럼 홍제천 물길 속에는 새 삶을 꿈꾸던 이들의 기원이 가득하다.

과거 병자호란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간 우리 백성의 수가 60만 명. 온갖 고초를 겪고 다시 돌아온 조선의 여성들에게 이 땅은 '환향녀'라는 칼을 채워버리고 만다. 사회적 압박과 억울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여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조정이 내놓은 궁여지책이 바로 '홍제천에서 몸을 씻은 여인은 모든 과거를 불문에 붙인다'는 명이었다. 이른바 절개가 회복되는 '회절강(回節江)' 제도다. 숱한 여인들이 이곳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며 닦아낸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닌 서러운 생이었을 터. 무심한 물길에 과거도, 눈물도 흘려보내며 그네들은 다시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이를 지켜보며 어루만져준 또 다른 존재. 바로 거대한 암석에 새겨진 저 백색의 마애불, 천년고찰 옥천암의 부처님이 있다(옥천암 마애보살좌상, 2014년 보물 지정).

이성계가 도읍을 정할 때 기도를 했고, 또 조선 후기 고종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는 이곳. 현재는 북한산으로 향하는 자락길과 홍제천 산책로까지 더해져,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오가며 자신들의 기원을 하나둘 내려놓고 길을 떠난다.

묵묵히 자리한 마애불도 때로 저 흐르는 물줄기에 모든 것을 씻어내고 다시 천년을 지킬 힘을 얻는지 모른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시작되는 입하. 저 무구한 물길 속에 연등 불이 환히 떠오르는 날, 이 여름도 그렇게 시작될 것이다.

〈작가〉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대행 스님



#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아님이 없노라

**마음에 걸림 없이 살고 싶어요**

**질문** 마음으로는 마음공부를 하여 마음에 걸림 없는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의 내 모습은 너무도 찌질하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걸리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좀 자신이 없고 다음 생은 참수행자로서 열심히 정진하고 싶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우리 중생들은 생각 자체,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자기를 지키기 못하기 때문에 행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방황하게 되고, 들어오면 나갈 줄 모르고 나가면 들어올 줄도 모르죠. 자기 마음의 부처가 자기 육신의 중생에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남의 육신에도 이익을 줄 수 있고 마음도 싱그럽게 오고 감이 없이 서로 통하게 되어 에너지와 같이 이렇게 통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됨으로써 그 한 눈에 우주가 밝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을 한군데…. 자기가 공했기 때문에 마음조차 공했고 마음이 공했기 때문에 세상이 공했고 세상이 공하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다 공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하루하루 24시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자기가 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요 동안만 헤쳐진다면 또 별문젠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헤치고 살던 그 습이 세세생생에 돌아가서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묶고 자기를 구덩이에 빠트리고, 이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아프다고 우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고승이 열반을 하셨는데 열반을 하셨어도 생시에처럼 보신들이 모시고서 수레를 타고 가시는데 어디쯤 가다 보니까 한 캄캄한 암흑 구덩이에서 마구 춥다고 떨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는 나는데 그 사람네들은 눈도 귀도 뜨지 못해서 그 암흑 속에서 한 발자국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는 그것들이 불쌍하니까 한 번 숨 들이쉬는 데 고만 그 업보가, 인과가 다 무너지고 다 녹아 버렸다 이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불에 타 버렸다 이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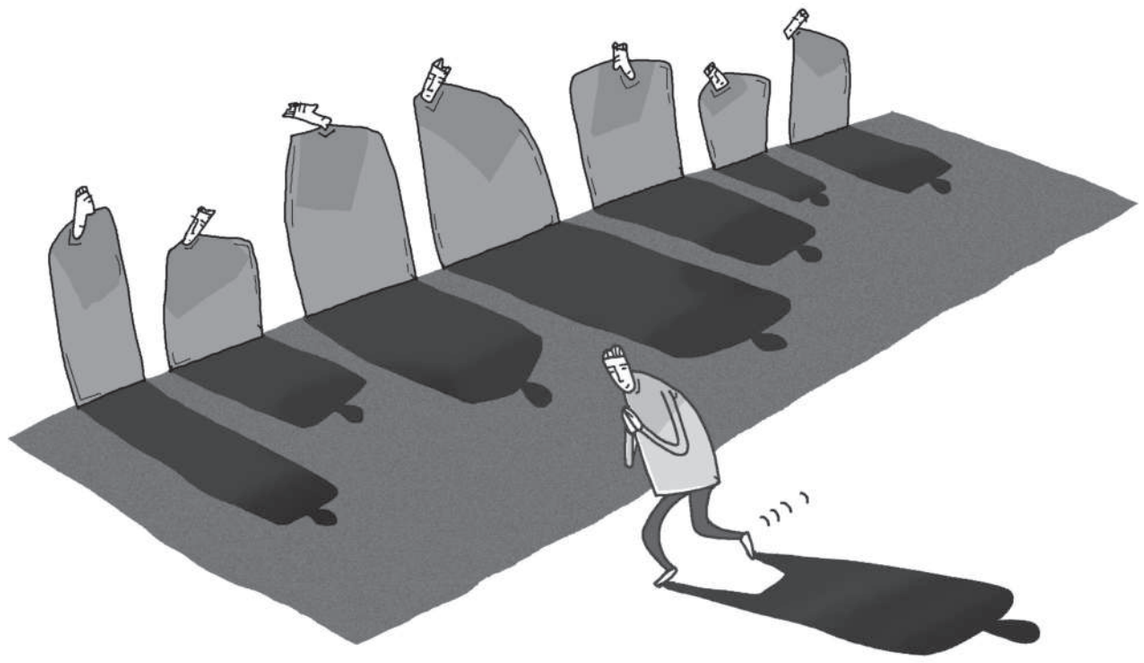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또 어디쯤 가다가 또 한생각이 들기를 '아, 그것이 녹아 버렸다면 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개 돌려 보니 캄캄한 암흑 구덩이에 빠져서 모두 말 한마디 잘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울면서 "스님! 스님을 뵙기는 할 수 있는데 이 말 한마디 잘못한 거에 걸려서 이렇게 캄캄한 암흑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그러니 제가 물을 때에 꼭 대답 한마디만 해 주시고 가십시오." 하거든요. 전자에 어느 스님들께서 근기가 약하든 근기가 있든 여러분들이 오시는 대로, 거지가 오든 마다 안 하시고 설해 주신 그 뜻을 우리는 참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백 생 여우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렇게 야호라고 한 뜻이 바로 암흑 구덩이라.

그러니 그러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구덩이에서도 수많은 중생들이 거기에 그렇게 걸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과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한 것도 아니니라. 네 한생각이 그 도리를 알면은 밝아질 수 있느니라." 하니까 홀연히 그 자리에서 깨쳐서 그 모습을 벗고 승천을 했다 합니다.

그 한 번 숨 내쉬는 데는 두루 중생들에게 모든 그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오고 감이 없이 통하는 마음으로서 밝아지니 나와 남이 없이, 나 아님이 없는 그 유생 무생들이 다 밝아져서 스스로서 깨치고 스스로서 개발을 하고 스스로서 국적이 잘되고 스스로서 세계가 좀 더 질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사람이 자기가 연구를 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고 창조하게 되고,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게끔 되는 이치가 바로 내 마음이 그렇게 밝아야 된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이게 그르다 하면 그른 데로 쏠리고, 이게 옳다 하면 옳은 데로 쏠리고, 학이다 하면 '이건 도가 아니다' 이렇게 끌리고, '이거는 도다' 하면 이건 도로 끌리고, 이렇게 해서는 도와 학, 생활 이 모두가 천차만별로 된 것이 한데 뭉칠 수도 없거니와 그 한데 뭉쳐 있는 거조차도 놓을 수가 없어요. 저 강물이 저렇게 당당하고 도도하게 흐르듯이 그 물에서 파도가 일고 그 물에서 도도하게 저렇게 시퍼렇게 흐르듯이 이 세상에 한번 나왔다면 그냥 갈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만법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만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살아나가면서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사람이 살아나가자면 벌어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길러야 하고, 윗분들은 섬겨야 하고 아랫사람들은 길러야 하고, 묵은 빚 갚으랴 햇빛 주랴 이건 살기가 거듭거듭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루종차 헤아릴 수 없이 붙여서 걸려 돌아가니 사람 살맛이 나겠습니까?

살맛도 안 나려니와 세세생생에 그렇게 끄달리고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등장을 할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배역을 하러 나올까? 머슴으로 나올까, 대관으로 나올까? 토끼로 나올까, 뱀으로 나올까? 이 모습으로 가지고 나올 건 누가 상상도 못 해요. 그건 자기 마음에 달린 겁니다.

어느 사람이 부처님 앞에 가서 고하기를 "저는 이 세상에 나와서 나쁜 일은 안 하고 좋은 일만 했고 배고픈 사람 밥 줬고 옷 없는 사람 옷 줬고 모든 일을 이렇게 좋게 했거늘, 왜 이렇게 가난하며 가환은 이렇게 많습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날까지 했어도, 지금만 한 게 아니라 거듭거듭 해 나왔어도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똑똑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혼자 살았던가요? 언제 식구가 있었던가요? 언제 자식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던가요? 언제 친척이 있었던가요? 이 세상 천지만물이 나기 이전 나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하는 이 식구들은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대로 깡통끼리 모이고 무쇠끼리 모이고 이렇게, 항상 내가 말하죠? 이것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차원을 어떻게 다 말을 하리까.

이 중세계에 이름 모를 것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평상시에 자식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 19면에서 계속

의 육신 안에, 바로 오장육부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들의 이름조차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내부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외부에 있는 그 이름 모를 것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 생명들은 또 어쩝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직결돼 있는 현실에 나와 모두 다 있는데 우리가 먹고 같이 연쇄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도, 또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먹고사는 것도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 이 모두가 공 자리, 이 모두가 이러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했고 내가 줬고 내가 잘했고 이렇게 하면서도 쪼끔만 잘못하면 저건 저 사람이 했고 저 사람이 했고…. 원망, 증오, 또 잘한 것도 저 사람이 잘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모두가 둘로 두니 이 노릇을 앞으로 어찌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나오는 그 습에 의해서 모든 생명들이 한 생각 잘못하면 수억만 개가 잘못된 생각으로써 생명들이 이렇게 소생이 되지만, 잘 생각을 했다면, 한 번 잘 생각하는 반면에 죄 하나도 없이 타 버릴 수 있고 또 생명이 좋게 태어나서 모든 만사 만생을 다 건질 수도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모습과 같고 내 생명 같죠. 더 자세히 말한다면, 여러분 몸속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생명과 의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그 생명들의 집합소며 집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없으니만큼 될 수 있으면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하면서 내려온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몸속에 모두 주둔하고 있는 자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의 집을 아무렇게나 굴려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합쳐져서 이렇게 형성된 몸뚱이를 자기 몸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아무렇게나 굴린다면, 그것은 일체 만물에게도 미안한 점이지만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됐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게 되고, 그 모습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부모한테 정자, 난자를 받은 은혜, 그것에도 보답이 아니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부모는 항상 자식들한테 단점을 보이지 말라. 자식의 탓을 하지 말라. 부부지간에 서로서로가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언제나, 싸우는 일이 없고 화목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은연중에 자식들이 배운다. 효도를 강요하거나 잘살라, 올바르게 말하라, 올바른 행동을 하라 하고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위에서 스스로 함으로써 은연중에 자신들도 그렇게 물이 들어 가고, 그렇게 배워 나가고, 그렇게 다지고, 그렇게 지니고 행동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형성시킬 때엔 바로 자기 종자를 자기가 형성을 시키고 자긴 껍데기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깻조자리가 깨를 내놓고, 깻조자리는 없어지고 깨가 심어져서 다시 깨 싹이 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자식이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말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면 그걸로써 자기의 재산이든 마음이든 몽땅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참 기특하고, 말 안 해도 그렇게 해 나가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 부모한테 들면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생각을 해 주는 그 은혜는, 항상 생각을 내면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대로, 가고 옴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되고 그렇게 해서 빚진 게 없이 서로가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못된 짓만 하고, 엉뚱한 데다 돈을 버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해서 빚을 지게 되니까 집을 팔아서 갚게 되고, 이렇게 해서 끝끝내…. 한두 번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감싸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버린 자식과 같이 부모의 마음에서 떠난 자식이 있죠.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마음에서 이미 떠난 자식이요. 부모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 그건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럭더럭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을 시켜 드리는 것이 빚을 갚고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그냥 '그저 저만하면 우리 자식은 됐어.' 이 정도로만 마음을 갖게 해 드리면 그게 효도입니다. 효자고 효녀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는 그 가정의 부모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효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도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종자에 따라서, 배기무우냐 장다리무우냐에 따라서 싹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안 그럴까요? 공을 들여서 일 년을 묵혀서 배기무우로 만들어서 열무를 심으면 장다리가 앉지 않습니다. 무우만 덩그마니 생기죠. 그러나 그냥 잡종 무우씨를 심어 놓으면 열무가 나는데도 장다리가 삐죽하게 나와서 꽃부터 먼저 피죠. 그러면 그건 열무도 못 먹고 무우도 안 생깁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자식을 기르면서 너무 많은 단점을 보이고, 화가 난다고 애들한테 포악하게 하고, 그냥 귀찮아하고, 또 막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일 년, 이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은연중에 속에 지니게 되고, 유전이 되고, 그대로 말로 나오고, 그대로 행동이 되고,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속담도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 저 강물이 저렇게 당당하고 도도하게 흐르듯이
> 그 물에서 파도가 일고 도도하게 저렇게 시퍼렇게 흐르듯이
> 이 세상에 한번 나왔다면 그냥 갈 순 없잖습니까.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질문** 해마다 5월이 되면 한 번쯤은 부모님과 스승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모은중경도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효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효에 대한 마음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듯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바른 마음을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아님이 없노라고요.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거듭거듭 진화돼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거쳐 왔기 때문입니다. 수억겁 광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거듭거듭 돌아 나왔으니 지금 현생의 어머니 아버지만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의 부모를 남의 부모로 생각지 말고, 내 부모 아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모두가 모자랐을 때의 으로 좀 뒤떨어져서 잘못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습니다" 해 놓고 그대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속 안 썩여 드리고 아주 질서 정연하게, 내 마음 같고 내 괴로움 같고, 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같이 나도 그렇게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부모가 자식 속을 썩일 리가 없고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일 리가 없어요.

'효도해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내 생명 같고 내 몸 같고, 내 아픔 같고 내 괴로움, 내 외로움 같으면 아주 그거는 효도라는 이름 아니더라도 그대로 정말 세세생생의 효도인 동시에 일체제불의 그 마음과도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이 나쁘니 좋으니, 잘못하느니 잘하느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느니,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못 했느니 이러한 생각을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내 주인공에다 다 놓고 같이 한마음으로 하신다면, 한 종자니까 어머니는 살아생전처럼 지켜 주실 거고 아버지는 채찍질을 해서 나를 길러 주실 테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같이 먹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이상, 각자 내가 있는 이상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에 부모님과 같이 먹는 것이지 어떻게 따로 떨어져서 먹습니까? 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가 자기 종자를 뿌려 놓고서 성장이 되면 바로 자기 껍데기는 껍데기로 변해서 가지만, 그건 바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된 겁니다. 그게 둘이 아닙니다. 사시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조상의 탓이나 하고, 잘못되면 원망이나 하고 이럴 분들의 소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인은 지혜롭고, 소인은 소견이 아주 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이나 이렇게 사시라고 항상 말씀해 드리죠. 부부지간도 자식지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라. 못났든 잘났든 내가 생겨났으니까 바로 상대가 있고 자식도 있고 부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부부가 있으며 자식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으니 모두 있는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지 어째 남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남의 탓으론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그대로 내 탓으로 돌려서 그대로 거기다 놓는다면 그냥 입력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 입력이 된다면 앞서 그 그릇에 입력이 된 것은 전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봐도 내 아픔같이, 내 괴로움같이, 내 외로움같이 생각한다면 항상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되고 항상 부드러운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노인들을 따로 본다면 항상 말도 거칠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남도 그렇지만 현재 내 앞에 당면해 있는 내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시대적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고인사이드 글로벌
본 수 07:30 재 수 20:30 / 토 08: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강소연의
## 수행 다이어리

⑨ 바탕자리(1)

# 내 몸과 마음의 본향
〈本鄕〉

사마타 수행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희한한 체험을 하였다. 다양한 삼매 체험(지난 연재⑤⑥⑦ 참조)이라는 지진 뒤에는 막강한 여진이 있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의식이 갑자기 허공과 하나가 되었다. 의식이 내 몸의 밖으로 나갔다고 해야 할지, 내 몸의 안팎 경계가 없이 확장되었다고 해야 할지. 뭐라 표현하기 힘든 오묘한 현상이다. 아무튼, 의식이 순식간에 확- 퍼지듯 '바탕자리'와 하나가 되었다. '바탕자리'란 광활한 '허공'을 말한다.

### '나와 세상'과 분리된 의식

나는 (사실 딱히 '나'라고 할 것이 없는) '허공' 그 자체였다. 그리고 허공(바탕자리)에서 세상을 관조했다. 세상은 탁한 필터를 한 겹 질 벗긴 듯 투명하고 영롱해 보였다. 세상 만물을 인식하기는 하는데, 세상 만물과 분리되어 있었다. 분리되어 있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기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반응 없이 그저 여여(如如)하게 알기만 한다.

아스라이 관조만 하는 의식 상태, 적멸(寂滅)의 상태이다. 그렇게 관조된 세상은 진정 평화롭다. 폭풍이 쳐도, 산사태가 나도, 대형 참사가 나도, 거대한 공간 속에 모두 무상할 뿐이다. 이 모든 것(나를 포함한 삼라만상)은 분리되어 인식된다. 분리되어 있으니 알기는 알지만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딱히 관여할 것이 없다. 이런 모순적 평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을 보는 느낌에 비유해 본다.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을 관찰하는 카메라의 위치는 멀찌감치 설정된다. 조감도식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거나 수평 각도에서 볼 때도 충분한 거리를 둔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그저 관찰만 한다. 동물을 가까이서 보거나 감정이 이입되거나 하면, 그들의 먹고 먹히는 생존 현장은 비극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저 멀리서 관조하면 순간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또 '분주하지만 먹통인' 모순적 풍경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과 함께 무상하게 지나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화[적멸] 속에 있다.



바탕의식과 하나가 되면 '나와 세상' 과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저 반응 없이 관조한다. ©강소연

### 바탕자리=바탕의식

허공에 의식이 있다는 사실! 바탕자리에는 바탕의식이 있다. 이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렇기에 오염되지 않아서 청정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수의식·우주의식·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고도 한다. 이 투명한 순수의식의 성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반응 없는 부동심(不動心,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무엇에도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다. 그저 여여하게 알기만 한다. 세상과 함께 있으나 오묘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 분리 현상은 연잎 위의 물방울에 비유된다. 연잎 위에 떨어진 물방울은 퍼지거나 스며들거나 부서지지 않고, 제 모양새 그대로 또르르 굴러떨어진다. 바탕의식이 연잎에 해당하고, 물방울들이 세상 만물에 해당한다. 함께 있지만 섞일 수는 없다. 바탕의식의 경계(가장자리)를 파악하려는 순간, 그것은 끝도 없이 확장된다. 미립자의 안팎으로 있는 허공, 나의 안팎으로 있는 허공, 창문의 안팎으로 있는 허공, 하늘의 안팎으로 있는 허공, 지구의 안팎으로 있는 허공, 우주의 안팎으로 있는 허공. 끝 간데없는 하나의 허공 바탕이다. 그런데 이 바탕은 청정의식으로 충만하다. 공무변처(空無邊處)와 식무변처(識無邊處)가 뭔지 알 것도 같다.

### 그것도 잠시, 다시 진흙탕으로

자아의 감옥에 벗어나 광활한 바탕의식과 하나된 체험! 15년 전 당시, 그 첫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체험이었다. 몸에서 천근의 무게라도 빠져나간 듯, 자유롭게 하늘을 날았다. 개체(나) 의식에서 벗어나 초월의식으로 전환되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직관적으로 보이고 또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몽(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꿈)도 기막히게 꾼다. 자잘한 일상과 골칫거리들은 문제도 안 된다. 한 번 포맷(format, 저장된 정보의 삭제) 또는 리셋(reset, 기억 장치의 초기화)되었기에, 세상에 갓 나온 아이처럼 천진하고 태평하다. 항상 '해야 할 일'에 허덕대다가 갑자기 '이제 뭘 해야 하지'하고 어리둥절하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나락이다. 분명 내 몸과 마음의 본향(本鄕, 본래 고향)이 이곳(바탕자리)일텐데, 나는 세세생생의 습(習, 되풀이하여 익숙한 행行)대로, '무명(자아)'이라는 감옥에 어느새 돌아와 버렸다. 잠시 멈추었던 업행과 업력은 다시 가열차게 돌아간다. 사마타 수행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잠시 멈추었던 '나'라는 공장에는 다시 전원이 켜지고 재운행이 시작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⑨ 해열제 교차 복용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 아이 해열제 복용법

"따르르릉."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의 방문으로 바쁜 와중에 눈치 없는 약국 전화기가 울려댄다.

"여보세요?"

"우리 아이가 열이 안 떨어져요!!"

"우리 아이 누구요?"

"왜... 왜... 오전에 약 받아간 아이요!!"

"아, 저희 오늘 오전에 약 받아간 아이가 50명 정도 되는데요."

"왜... 왜... 그 빨간 티 입고 간 귀엽게 생긴 남자애 있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이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5월은 감기가 유행하는 달이다. 다른 말로 약국의 성수기라고도 한다. 보통 감기는 춥디추운 겨울에 유행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약국에서 겪어보면 1, 2월은 오히려 감기 환자가 적다. 왜 그럴까? 분명히 추울 때 감기가 많이 걸릴텐데.

통계를 보니 감기 환자는 1~2월과 7~8월에 급감한다. 이 시기의 공통점이 무엇이길래 감기 환자가 적은걸까?

유레카!! 이 시기는 방학이라는 자비로운 기간인 것을 알아챘다. 그랬다. 감기는 추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시기는 감기 환자가 많아지고, 방학이 되면 그런 전염병은 뜸해진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던 코로나 시기에 감기와 독감, 수족구 같은 질병이 전멸하다시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오늘은 감기 증상과 동반되는 열과 관련하여 해열제 복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첫째. 열이 몇 도이면 해열제를 먹여야 하나요?

열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반응하는 정상적인 면역반응 중 하나다. 열이 나야 몸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세균 바이러스와 더 잘 싸울 수 있게 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우리 아이의 몸이 외부 침입자와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귀 체온계 기준으로 38.5도 이상의 고열일 때는 해열제를 먹이는 것으로 안내하고, 37~38도 사이의 미열이 나는 경우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해열제를 바로 먹이지 말고 조금 지켜보라고 이야기한다. 반대로 미열이더라도 아이가 힘들어하고 보챈다면 해열제를 바로 먹이는 것이 좋다. 절대적인 체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컨디션과 상황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둘째, 해열제의 교차 복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열제 교차 복용이란 아이의 열이 쉽게 잡히지 않을 때 두 가지 계열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열제는 타이레놀 계열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과 부루펜 계열으로 알려진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있는데, 상비약으로 두 가지 계열의 해열제를 모두 구비 하는 것이 좋다. 부루펜으로 알려진 이부프로펜 성분은 만 12개월 이상 아이부터 복용 가능하고, 맥시부펜으로 알려진 덱시부프로펜 성분은 만 6개월 이상 아이부터 복용 가능하니 아이 나이에 맞게 구비 해두면 되겠다.

흔히들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2시간 간격으로 먹이는 것을 교차 복용 방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필자는 시간 간격에 매몰되어 아이가 열로 힘들어하는 것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신경 쓰지 말고 해열제를 먹이라고 안내한다.

물론 두 계열의 작용 기전이 다르고 약물의 작용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2시간 간격이 가장 좋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효과가 없을 때는 즉시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실제로 심한 열 몸살에 두 가지 계열의 해열제가 동시에 처방되어 포장되는 경우도 흔하니 말이다.

셋째, 두 계열의 해열제 중 어떤 것을 먼저 먹이는 것이 좋나요?

평소 우리 아이가 잘 듣는 해열제를 먼저 먹이는 것이 정답이다. 꼭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면 이부프로펜 계열을 먼저 복용해 보도록 권하는 편이다. 이부프로펜 계열의 해열제가 소염 작용도 있을뿐더러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넷째, 해열제를 교차로 먹었을 때 저체온증이 오지 않나요?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 나서 기준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해열제는 이 체온 기준점을 정상으로 돌려서 열을 떨어트리는 것이므로 해열제를 먹는다고 해서 체온이 정상보다 내려가지는 않는다.

해열제 때문이 아니라 열이 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는 있다. 열로 인해서 땀이 났을 때 땀에 젖은 옷이 식으면서 아이의 체온을 빼어가서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고, 너무 차가운 물수건을 쓰거나 주변을 너무 차갑게 하는 것도 저체온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체온증은 해열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열이 난 상황 자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열제의 복용이 저체온증을 일으킨다고 오해는 하지 말자.

해열제는 누구나 상비해두고 있고 자주 쓰는 약이지만, 의외로 우리는 해열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가끔 열만 내리는 해열제는 필요 없다, 열은 저절로 내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 해열제 무소유를 외치다가 고열을 동반한 고약한 병치레를 소유할 수 있으니 말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시간 염불도 거뜬 !

하던 내 체력! 이제는 30분 염불에도 무리가 오니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 천만에!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세시간 힘빠진 작은 염불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전법 일기

## 뜻밖의 만남, 새로운 다짐

"유튜브 운영하시는 한산 스님이세요?"

"네? 제가 온라인법당 '친절'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저를 아시나요?"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리는 넓은 전시장 한가운데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다.

도반인 무여 스님이 2년 만에 불교박람회에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나도 3박 4일간 동행했다. 세텍(SETEC)에서 코엑스(Coex)로 옮긴 장소의 변화만큼이나 전시장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랐다. 20~30대 젊은이들이 개장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 3층부터 1층까지 꼬불꼬불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부스를 둘러보는 그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꽤 인상적이었다.

박람회 부스에서 무여 스님의 다양한 작품과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그봄출판사의 책들을 소개하던 중이었다. 그때 한 스님이 우리 부스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한 장 집어 들고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명함으로 나를 알아보고 유명하지도 않은 내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자, 순간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밀려왔다. 온라인법당 '친절'을 운영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오랫동안 콘텐츠를 올리지 못해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다. 그런데 이렇게 낯선 공간에서 구독자를 만나다니 신기하고도 반가웠다.

스님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올린 명상 콘텐츠를 여러 번 보았다고 했다. 그 영상들이 힘든 시기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 했다. 누군가의 진심이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해질 때 그 고마움은 몇 배로 커진다.

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나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을 남기고 기억하기 위해 제작하는 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닿아 도움이 되었다니, 마음이 환해지고 큰 감동이 일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 타인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의미가, 이 작은 만남 속에서 또렷이 실감됐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스님은 "요즘은 유튜브에 새 영상이 잘 안 올라오던데요?"라며 근황을 물었다. 뜨끔했다. "앞으로는 콘텐츠를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두 눈을 부릅뜨며 나도 모르게 다짐처럼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여러 번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미루는 마음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다. 못한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안 한 것이다. 손 놓고 있던 명상 콘텐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그때 만난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불교박람회에서의 짧은 만남은 내게 작은 용기와 새로운 결심을 남겼다. 누군가의 응원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도 나와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조금 더 부지런히 걸어가고 싶다. 시선이 나에서 타인으로, 다시 세상으로 자연스레 확장되는 그 과정을 천천히, 한 걸음씩 내 속도에 맞춰 이어가야겠다.



**한산 스님**
**온라인법당 '친절' 운영**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⑮ 대화법 특강: 존중의 햇살 ②

# 따뜻한 경청, 갈등 해결의 지름길

요즘 학교는 갈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학교라는 말을 검색하면 자동완성 문장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모인 사회의 축소판인데, 폭력과 자동연관 검색이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갈등을 다루는데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학교 구성원들은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청과 법원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갈등은 서로 다른 욕구가 합의하지 못한 '과정 중인 상태'일 뿐이고, 한 개인 또한 평생 뭔가를 선택하지 못해 늘 '내적 갈등'을 겪는데 말입니다.

시장에 다녀온 엄마가 아이 방을 열어봅니다. 아이는 학원도 가지 않고 신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지 욕설을 섞어가며 정신없이 자판을 두드려 댑니다. 엄마는 불쑥 컴퓨터 전원코드를 뽑고는 방을 나와버립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수업 중 아이들에게 가상으로 이런 상황을 제시하면, 아이들은 분노를 폭발하는 메소드 연기를 펼칩니다. 자신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애태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추악한 외모로 이름이 났습니다. 거기다 낙타처럼 등이 굽었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면 그를 사모하여 떠나지 않고, 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처가 되기보다 그의 첩이 되겠다는 이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많이 배워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음에서 구해준 적도 없으며, 재산을 모아 남에게 베풀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 경청과 동조였습니다.

**갈등, 뽀족한 가시의 밤송이 같아**
**가시처럼 뾰족한 자신의 입장은**
**숨은 욕구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
**韓사회 어느 때보다 경청 필요해**

인도에서 평생 빈민 봉사에 헌신한 '테레사' 수녀가 한 방송국에 출연했습니다. 뉴스진행자가 "당신은 하느님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하고 묻자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느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느님도 듣습니다."

경청에 관한 두가지 에피소드입니다. 듣는 것 자체가 따듯한 햇살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처럼 '①주된 화제를 찾고 ②행동과 감정을 분리하며 ③감정의 배경인 욕구를 탐색하고 ④만족할 만한 약속을 찾아 타협하기'의 과정이 그 한 방법입니다.

갈등은 밤송이와 같습니다. 가시 돋친 입장만을 내세우며 서로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맨손으로 밤송이를 잡거나, 억지로 밤송이를 벌리려고 할 때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햇살은 저절로 밤송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가시처럼 뾰족한 그의 '입장'은 가시 속 알밤 같은 '숨은 욕구'를 지키기 위한 방어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경청,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인내하고 함께 들어주는 '존중의 햇살'이 절실합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 왜 세계적 '부처님 생애' 콘텐츠 없을까

한국의 모팩스튜디오가 제작한 3D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가 미국에서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활절 주간에 개봉한 '킹 오브 킹스'는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담아낸 기독교 애니메이션이다. 제작사에 따르면 '킹 오브 킹스'는 4월 28일 기준 누적 수익 5451만 달러(약 787억 원)를 달성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최종 매출액인 5384만 달러(약 777억 원)를 넘겼다.

'킹 오브 킹스'를 제작한 장성호 감독은 기획 단계부터 비기독교인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목표로 했다고 한다. 장 감독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성경을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도 영화를 봤을 때 거부감이 안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처님 생애를 다룬 최초의 영화는 1923년 유명한 인도 영화감독 다다사헤브 팔케(1870~1944)의 '부다데브(Lord Buddha)'로, 전 세계적으로는 26편의 작품이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제작됐다. 이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인지도가 있는 작품은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리틀부다〉 정도다.

'만화의 신'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 〈붓다〉가 2011년과 2013년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지만, 흥행성적은 좋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부처님의 생애 관련 영화가 제작됐는데, 장일호 감독의 1964년 작품 '석가모니'다. 이후 부처님 생애의 영화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전부 무산됐다.

'부처님 생애' 관련 영화가 파급력이 적은 이유는 모두 비영어권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이다. 내용도 부처님 일대기가 중심이 돼 세계 시장보다는 내수용에 가까웠다. 반면, '킹 오브 킹스'는 제작 당시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다.

이제는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영화나 애니메이션 한 편은 나와야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작가, 크리에이터들이 꾸준하게 불교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탄탄한 기반 위에 좋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듯이 '불교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particular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 지나간 계절과 다가올 계절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사찰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고 나면 하안거 정진을 준비한다. 이 말은 즉 봄을 보내고 다가올 여름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봄과 여름의 사이에 부처님오신날이 있다 보니, 겨울의 동안거를 마치고 봄의 준비를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참으로 바쁘지만 가장 설레고 따뜻한 시기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로 사회의 많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고, 사람들도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면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불안감과 무책임이다. 오늘 하루의 일상은 어떤 큰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제와 비슷하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하루를 넘어 일상이라는 범위를 생각하면 무언가 항상 불안한 요즘이다.

불안감이 있다 보니 일상과 삶에 있어서 어떤 준비나 대비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될 대로 되라' 식의 생각이나,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 익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흉내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젊은 세대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은 더욱 무섭고 위험한 광경이기도 하다.

언제부턴가 MZ세대, 젠지적 생각 등으로 젊은 세대를 구별하고 방치하는 듯한 풍토가 생겨났다. 어쩌면 그들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것은 그들이 MZ여서가 아니라, 그런

**무책임하게 맞이한 계절**
**어려움은 항상 자신의 몫**
**원인 파악하고 대비해야**

것을 보고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과 같이, 앞선 세대들이 경제공황, 코로나 등의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이후 자신의 일상에서 그런 모습이 자리잡으며 그것이 다음 세대로 전달된 것일지도 모른다.

한 계절이 지나면 그 계절이 지나기 전에 다음 계절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를 놓치거나 안 하면 다음 계절이 찾아왔을 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겨울의 문턱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많은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아직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는 지금 한 계절을 보내고 다음 계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다. 실제 계절이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간 계절은 언제나 교훈을 남겨준다. 우리가 준비와 대비를 하지 못해 겪은 어려움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을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다가올 계절을 잘 맞이할 수 있다. 다가온 계절을 무책임하게 맞이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찾아온다.

'보살외인 중생외과(菩薩畏因 衆生畏果)'라는 가르침과 같이 언제까지 결과만을 두려워하는 중생이나 범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모두가 부처이며 보살이다. 이젠 그 원인을 잘 알고, 그것에 의해 일어났던 일과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아 '잘' 준비해서, 우리의 일상과 삶, 사회가 별문제 없이 '잘' 지내도록 해야겠다. 우리의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배움이 되는 어제이고, 누군가와 함께할 내일이다.

# 대통령 선거와 잠자리 눈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생명선' 또는 '꽃'으로 표현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도 중요한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선거의 위기에 있다. 선거는 전통적으로 정치인이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여론을 반영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제도로 보았다. 매우 규범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많은 정치학자는 선거를 통해 정부나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을 순종시키고 침묵하도록 만들며,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 결국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엘리트와 국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통로'라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선거 전략과 조직 그리고 카리스마를 이용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이다. 이것은 유권자를 편 가르기를 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현

**3만여 렌즈 구성된 잠자리 눈**
**상하좌우 분별없이 볼 수 있어**
**잠자리 눈 갖고 투표에 참여를**

상은 지구촌 곳곳의 정치판에서 횡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현실은 더욱 심하다. 독단적 이념과 지역감정을 넘어서는 거대 담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선거 현장에서는 구분 짓기에 진력하고 분노와 미움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민주적 인성과 정치문화를 함양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언뜻 '잠자리 눈'이 떠오른다. 웬 잠자리 눈인가? 잠자리 눈은 3만여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상하좌우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 등 편 가르기의 심리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집단 최면을 유도한다. 선거판에서 정치인은 이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은 '분별심'의 극복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본다. 분별하면서 분별을 뛰어넘고, 다시 분별하면서 또 분별을 뛰어넘고.

잠자리 눈은 바로 연기적 시선이고, 중도의 눈이다. 민주주의와 불교는 매우 친화력이 높다. 민주적인 작은 국가인 밧지국을 보호하고 이를 계기로 유명한 '칠불쇠법'이 만들어진다(〈유행경〉). 민주주의는 자비 공동체를 구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자비 윤리는 특정 이념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보류하고, 또한 타인의 행위에 대해 독단적 판단을 유예하고 연민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자비의 상호윤리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달에 붓다의 지혜와 불교도의 자세가 씨앗의 역할을 하길 염원한다.

이번 선거에 잠자리 눈으로 고뇌하고 참여하자.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이 잠자리 눈으로 화신하신 것이니라.

社 說

## 동국대 건학위원회 4주년에 부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4월 29일자로 4주년을 맞았다. 동국대는 건학위원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4년은 동국대에게 혁신과 변화의 시기였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대학생 전법과 장학제도다. 특히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의 대표적인 장학제도로 지난 4년 동안 2767명이 수혜를 받았다. 2024년에만 17억 5100만원이 장학금으로 수여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통한 캠퍼스 전법은 동국대를 대학생 전법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경주에 총 25개 동아리가 창립돼 총 5758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사업 성과들로 동국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 TOP10'을 이끌어냈다. 또한 2026년도 첨단분야 신입생 정원 배정에서 64명이 증원됐다. 이는 서울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증원으로 전국 2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괄목상대'할 변화를 이끈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올해에도 대학생 전법 확장·안정화, 장학기금 확충, 로터스관 기공식 등의 사업을 꾸준히 전개한다. 모두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라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력이 담긴 불사들이다. 내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해내야하는 불사들이기도 하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우직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 성보박물관도 '배리어프리' 환경 갖추자

국립춘천박물관이 최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금동보살입상과 고려 초 강원 지역 철불을 대표하는 철조약사불좌상(보물)을 모형화한 촉각 체험물 8점을 설치해 관람객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험물에 대한 설명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음성안내기와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 안내문도 마련했다.

이처럼 국공립 박물관들은 경사로, 장애인·가족 화장실 등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을 넘어, 큰 글씨 전시품 해설책과 촉각 전시, 점자 블록, 수어 해설 영상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환경을 조성하는 추세다.

배리어프리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다. 본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특집호에서 '배리어프리-無장애불교'를 기획 기사로 다루었다. 불교계의 배리어프리 현황과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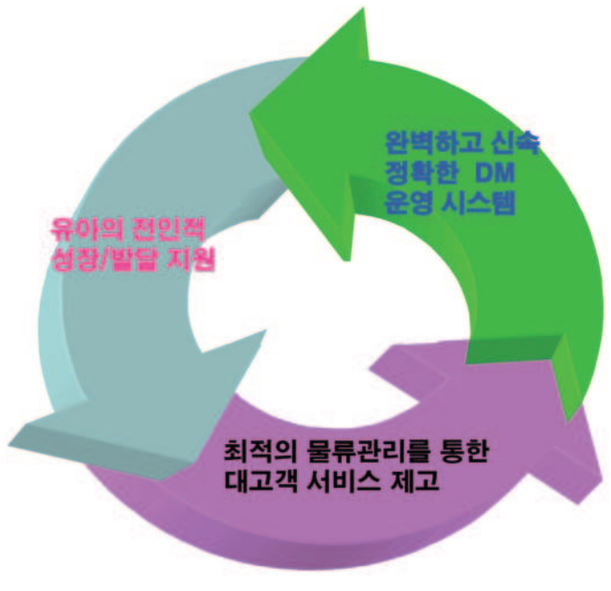
국립춘천박물관 사례에서 보듯 불교계도 사찰뿐 아니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인 성보박물관을 사회적 약자에게 문턱을 낮춘 시설로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성보박물관이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감으로 느끼고 그 가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유수한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대한제지

# 종이를 펼치면
#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